

2014年 學術發表會



東洋古典, 어제와 내일의 架橋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후 2시~5시30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전통문화연구회

후원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사)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 인 사 말 씀 ◆

모든 나무들이 빛을 잃고 松柏만이 푸르른 겨울 문턱에, 〈東洋古典, 어제와 내일의 架橋〉라는 주제로 2014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회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동양고전을 번역함으로써 현대화하고, 정보화를 통해 고전지식을 공유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축적된 열매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東洋의 전통적 處世觀을 통하여 현대사회의 인간성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壬亂 직후부터 朝鮮後期까지 兵書의 刊行과 推移를 검토하여 그 원인과 현상을 분석합니다.

또한 東洋古典 데이터의 公開·共有를 중심으로 동양고전 정보화 사업의 발전 방향을 眺望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행 어문정책과 한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방향과 전망을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展望하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내일의 礎石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2014년 11월 일

전 통 문 화 연 구 회

상임고문 李漢東
이사장 趙富英
회장 李啓晁

▣ 행사 일정 ▣

- 사회 : 元周用(성균관대 연구교수)

◆ 국민의례

◆ 개회사 14:10~14:25

┆ 趙富英(본회 이사장)

◆ 축 사 14:25~14:35

┆ 沈在箕(전 국립국어원장)

┆ 安洋玉(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出版 기념식 《武經七書直解》 《顏氏家訓》 14:35~14:50

◆ 주제발표 14:50~17:30

- 亂世의 지식인 顏之推의 사상과 처세관 -葛洪과의 비교를 통하여 ┆
鄭在書(이화여대 교수)7
- 조선시대 《武經七書(直解)》의 간행과 활용의 양상 ┆
盧永九(국방대 교수)19
-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 시맨틱 웹 시대의 ‘十三經注疏’ 데이터베이스
구현 전략 ┆
金炫(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35
- 漢字 文盲의 社會的 弊害 - 미디어를 중심으로 ┆
俞碩在(조선일보 기자)51
- 한자로(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기 활용 연구 ┆
玉哲榮(울산대 교수)69

◆ 폐 회 및 다과회 17:30

亂世의 지식인 顏之推의 사상과 처세관

-葛洪과의 비교를 통하여-

鄭在書(이화여대 중문과 교수)

1. 서언(序言)
2. 안지추(顏之推)의 생애와 《안씨가훈(顏氏家訓)》
 - (1) 안지추(顏之推)의 생애
 - (2) 《안씨가훈(顏氏家訓)》의 성립 및 내용
3. 안지추(顏之推)의 사상 및 처세관
4. 갈홍(葛洪)과의 비교
5. 결어(結語)

1. 서언(序言)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기였던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를 살았던 안지추(顏之推, 531-591전후)는 자신의 신산(辛酸)했던 삶을 반추(反芻)하며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지혜와 지식 등을 담은 개인저술 《안씨가훈(顏氏家訓)》을 남겼다. 이른바 가훈문학의 원조이기도 한 이 책은 단순히 교훈적인 내용을 넘어 당시의 문학, 역사, 철학, 언어, 사회, 민속 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담고 있어 역래(歷來)로 많은 논구가 이루어졌다.

《안씨가훈》을 통한 안지추에 대한 국내외의 주요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그가 지닌 유교, 불교사상 등에 대한 연구, 독자적 문학관에 대한 연구, 가훈서로서 지니는 교육적 내용과 가치에 대한 연구, 난세를 헤쳐 나갔던 그의 처세술에 대한 연구, 책에 담긴 언어학적 지식에 대한 연구, 당시의 풍속, 사회상에 대한 연구, 그를 통해 본 남북조 귀족의 실상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딛고 안지추의 사상과 그것에 기초한 처세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안지추와 비슷한 난세를 성공적으로 살았던 신선, 도교학자 갈홍(葛洪, 283-343)의 경우를 그의 저작 《포박자(抱朴子)》를 통해 안지추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서로 대조적인 입장에 서있었던 양자의 공통 생존논리를 밝혀

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안씨가훈》을 통해 발휘된 안지추의 사상 및 처세관이 난세의 지혜로서 보편성을 지녔음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2. 안지추(顏之推)의 생애와 《안씨가훈(顏氏家訓)》

(1) 안지추(顏之推)의 생애

안지추(顏之推)는 자(字)가 개(介)이고 양(梁) 무제(武帝) 중대통(中大通) 3년(531)에 강릉(江陵)에서 태어났다. 자는 이름과 상관하여 지어지는데 그의 자인 개(介)와 이름 지추(之推)를 합치면 개지추(介之推)가 된다. 개지추는 춘추시대 진문공(晉文公) 때 부당한 논공행상에 반대하고 스스로 불에 타죽어 오늘날 한식(寒食) 명절의 유래가 된 고결한 인사이다. 안지추의 집안은 아성(亞聖) 안회(顏回)를 선조로 하고, 누대(累代)에 걸쳐 유학을 가업으로 삼은 산둥(山東) 낭야(琅邪)의 망족(望族)이었으나 후일 진(晉)의 동천(東遷)에 따라 강남으로 이주하였다. 안지추의 조부인 안견원(顏見遠)은 제(齊)·량(梁) 교체기에 제의 관료로 순절(殉節)하였고, 부친인 안협(顏協)은 양의 상동왕(湘東王) 소역(蕭繹) 막하(幕下)의 재학(才學)이 뛰어난 번신(藩臣)이었다. 이로 보아 안씨 일문은 강남의 명문거족(名門巨族)은 아니었으나 그런대로 가학을 배경으로 귀족의 지위를 유지한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안지추는 유년기에 엄하면서도 자상한 가정교육을 받았던 듯 《안씨가훈》 〈서치(序致)〉편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우리 집안의 가풍과 가르침은 평소 엄정하였다. 예전에 나도 일곱, 여덟 살 무렵부터 가르침을 받아 매일 두 형님의 뒤를 따라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방이 더운지, 차지는 않은지 살펴 드렸으며, 절도 있는 걸음걸이와 조용한 말씨며 단정한 모습 등을 익혔는데 조심스럽고 공경함이 마치 엄한 임금님을 뵈듯이 하였다. (부모님은) 부드러운 말로 지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물었으며, 모자란 것은 격려하고, 잘한 것은 고무하기를 더할 나위 없이 간절하고 정성스레 하셨다.¹⁾

1) 《顏氏家訓》〈序致〉. “吾家風教，素爲整密。昔在齠齔，便蒙誨誘，每從兩兄，曉夕溫清，規行矩步，安辭定色，鏘鏘翼翼，若朝嚴君焉。賜以優言，問所好尚，勵短引長，莫不懇篤。”

번역은 ‘정재서·노경희 역주(2011), 《譯註 顏氏家訓(1,2)》, 전통문화연구회.’에 의거함. 이하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버지 안협이 9세때 별세하면서 안지추는 형의 손에 맡겨지는데 이후 소년기에 잠시 방황하였다가 곧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상동왕의 막하에서 국좌상시(國佐常侍) 등의 벼슬을 살게 된다. 그러나 후경(侯景)의 난이 일어나면서 상동왕의 세자 소방제(蕭方諸)를 수행하던 안지추는 세자가 피살되고 함께 처형될 위기에 놓인다. 이때 후경 군 행대낭중(行臺郎中)인 왕칙(王則)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안지추는 강릉으로 돌아가 새로 즉위한 원제(元帝, 과거의 상동왕) 밑에서 산기시랑(散騎侍郎), 원외랑(員外郎) 등의 관직을 맡았다.

원제 밑에서의 벼슬살이도 잠깐, 다시 양은 서위(西魏)의 침공을 당하여 강릉이 함락되고 원제가 피살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다. 안지추는 서위 군의 포로가 되어 북방의 장안(長安)으로 끌려가던 중 대장군 이현경(李顯慶)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홍농(弘農)에서 서한(書翰)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되어 노비의 신세는 면하였다. 홍농에서 1년 여간 생활을 하던 안지추는 기회를 보아 탈출하였으나 양이 망하고 진(陳)이 건국하는 바람에 돌아갈 곳을 잃어 북제(北齊)에 정착한다. 북제의 문선제(文宣帝)는 안지추에게 봉조청(奉朝請)의 벼슬을 내리는 등 중용하였다. 이후 문학을 애호하는 후주(後主) 때에 한족계(漢族系) 중신(重臣)인 조정(祖珽)의 건의에 의해 문림관(文林館)이라는 문학기관이 생기자 안지추는 이곳에 대조문림관(待詔文林館)으로 참여하여 중서사인(中書舍人), 황문시랑(黃門侍郎) 등의 고위직에 이르기까지 《문림관시부(文林館詩府)》, 《수문전어람(修文殿御覽)》, 《속문장유별(續文章流別)》을 편찬하는 등 문화 활동을 주도한다. 그러나 후주의 실정(失政)으로 577년, 북제는 북주에 의해 멸망하고 안지추 등 문림관의 문인 17명은 북주로 압송된다.

안지추는 북주에서 어사상사(御史上士)로 등용되었다가 581년, 수(隋)가 중국을 통일하자 문제(文帝) 개황(開皇) 연간(581-600)에 학사(學士)가 된다. 이후 그는 육법언(陸法言)의 《절운(切言)》편찬에 참여하고, 백관(百官)의 급여를 개정하는 일과 역법(曆法) 제정과 관련한 일 등 다양한 학술활동과 제도 정비 작업에 만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졸년(卒年)에 대해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590년 이후 600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안지추는 사로(思魯), 민초(愍楚), 유진(遊秦) 등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 장남 안사로는 수에서 벼슬을 하다가 당(唐)에 들어와 기실참군(記室參軍)을 지냈으며 안민초는 수에서 통사사인(通事舍人)을 지내고 《증속음략(證俗音略)》 2권을 지었으며, 안유진은 수에서 전교비각(典校秘閣)을 지내고, 당 고조(高祖) 때에 자사(刺史)를 지냈으며 《한서결의(漢書決疑)》를 지었다. 안사로의 장남이자 안지추의 장손인 안사고(顏師古)는

《한서(漢書)》의 주석가로 유명하며, 6대손 안진경(顔眞卿)은 명필로 이름을 떨쳤다.

안지추는 그의 작명의 근거가 된 개지추와 같이 명분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몸을 담았던 나라가 세 번이나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세 번이나 포로의 몸이 되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기도 하였다. 파란만장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극한적인 위기가 거듭되는 삶에서 그는 개지추와 같은 고절(高節)의 길을 버리고 굴신수분(屈身守分)의 행로를 택함으로써 안신입명(安身立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후손에 이르러 가문의 번영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이것은 위진남북조 시대에 활약했던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정쟁(政爭), 전란(戰亂) 등에 의해 비명횡사하고 와 석종신(臥席終身)하지 못했던 사례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로, 바로 여기에서 그의 사상과 처세관은 빛을 발한다 할 것이다. 아울러 후손들에게 난세의 지침을 제시한 《안씨가훈》은 당대에 이르러 후손들이 영달(榮達)하여 그 진가가 입증됨으로써 이른바 검증받은 책이 된 셈인데 그 의미와 가치는 한 시대에 그치지 않고 모든 어려운 시대에 통용될 것이다.

(2) 《안씨가훈(顔氏家訓)》의 성립 및 내용

안지추의 모든 사상을 담고 있고 그로 인해 안지추를 불후의 인물로 자리 잡게 한 고전이 《안씨가훈》이다. 안지추는 이 책의 집필 동기를〈서치〉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내가 이제 다시금 이런 책을 짓는 까닭은 감히 사물에 법도를 세우고 세상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집안을 바로잡고 자손을 이끌고 타이기 위해서이다. 무릇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친한 사람의 말은 미덥고, 똑같이 명령을 하더라도 따르던 사람의 명령은 행하기 마련이다. 아이의 심한 장난을 그치도록 하는 데에는 스승의 훈계보다 평소 돌보던 여종의 이끄림이 낫고, 평범한 사람들의 형제간 다툼을 그치게 하는 데에는 요순 임금의 도리보다 아내의 달랠이 낫다. 이 책이 너희들에게 여종이나 아내보다 지혜로운 것으로 미덥게 여겨지기를 바란다.²⁾

2) 《顔氏家訓》 〈序致〉 “吾今所以復爲此者，非敢軌物範世也，業以整齊門內，提撕子孫。夫同言而言，信其所親，同命而行，行其所服。今童子之暴謔，則師友之誠，不如傳婢之指揮，止凡人之鬪，則堯舜之道，不如寡妻之誨諭。吾望此書爲汝曹之所信，猶賢於傳婢寡妻耳。”

안지추는 난세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안씨가훈》을 집필하게 된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은 엄숙한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손에 대한 자애와 염려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지추의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먼저 《안씨가훈》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20편의 글이 7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20편 개개의 항목을 보면 치밀하진 않지만 대강의 집필 구상에 의해 내용을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 〈서치(序致)〉편은 전서(全書)의 집필 목적을 밝히는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2. 〈교자(教子)〉편부터 제5. 〈치가(治家)〉편까지는 자식, 형제, 아내 등 가정 내의 교육에 관한 내용이며 제6. 〈풍조(風操)〉편부터 제19. 〈잡예(雜藝)〉편까지는 세상으로 나와 사대부로서 지녀야 할 인격, 처신, 학문적 소양, 기예 등에 관한 내용이고 제20. 〈종제(終制)〉편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전서의 대미(大尾)를 장식하고 있다. 결국 《안씨가훈》은 유교의 자기완성 단계인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수순(手順)에 은연중 상응하여 전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각 편을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치(序致): 저술의 목적을 담은 서문.
2. 교자(教子): 자식 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서술한 교육론.
3. 형제(兄弟):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기 위한 방법론.
4. 후취(後娶): 재혼의 여러 가지 문제들.
5. 치가(治家):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론.
6. 풍조(風操): 사대부의 처신법과 생활태도, 남북의 풍속 비교.
7. 모현(慕賢): 인재의 중요성.
8. 면학(勉學): 학문의 목적과 방법.
9. 문장(文章): 문학의 본질과 작가론, 창작론, 비평론.
10. 명실(名實): 명성과 실질과의 관계론.
11. 섭무(涉務): 실무능력의 배양.
12. 생사(省事): 불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집중할 것.
13. 지족(止足): 분수에 맞는 삶.
14. 계병(誠兵): 軍事에 대한 경계.
15. 양생(養生): 神仙術에 대한 견해.
16. 귀심(歸心): 불교 신앙의 옹호.

17. 서증(書證): 文字學, 訓詁學, 校勘學 등 고전연구 방법론.
18. 음사(音辭): 音韻論의 역사와 방법, 남북 음운의 차이.
19. 잡예(雜藝): 서예, 회화, 활쏘기, 점복(占卜), 음악, 바둑, 투호(投壺) 등의 기예론.
20. 종제(終制): 장례와 제사에 관한 유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집안의 대소사로부터 학문과 기예, 군사와 종교, 인생관 등에 대한 적절한 교훈, 실제 경험담 등으로서 난세를 살아가야 할 자손들에게 유익한 지침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씨가훈》의 교주본(校註本)으로는 청대(清代) 건륭(乾隆) 연간에 조희명(趙曦明)이 주석을 단 것이 있고 그의 벗 노문초(盧文弨)가 그것에 보주(補註)를 단 포경당본(抱經堂本)이 있는데 이 포경당본이 대표적 판본으로 행세하였다. 근대 이후 대만에 서 주법고(周法高)가 앞서의 주석에 자신의 보정(補正)을 덧붙여 《안씨가훈회주(顏氏家訓彙註)》를 편찬하였고, 다시 대륙에서 왕이기(王利器)가 조희명 이래 제가(諸家)와 자신의 주석을 집대성한 《안씨가훈집해(顏氏家訓集解)》를 완성하였다. 한, 중, 일 3국에서 나온 수십 종의 《안씨가훈》번역본은 모두 이들 교주본을 저본(底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³⁾

3. 안지추(顏之推)의 사상 및 처세관

안지추의 대표 저작인 《안씨가훈》에 대해 《구당서(舊唐書)》 〈경적지(經籍志)〉와 《송사(宋史)》 〈예문지(藝文志)〉등에서는 모두 유가(儒家)로 저록(著錄)하고 있으나 《사고전서총목(四庫全書總目)》에서는 잡가(雜家)로 분류하고 있어 과거 안지추의 사상을 보는 관점이 일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안지추의 중심 사상을 유학(儒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비록 남북조시대에 현학(玄學)과 불교가 유행하고 유학이 쇠퇴했다고 하나 아성 안회를 선조로 한 안지추의 가업 배경과 그가 지닌 유가 관료주의 및 현실주의 등을 고려해서이다. 가령 그는 〈계병(誠兵)〉편에서 유가적인 가치를 존중해온 사대부 집안의 전통을 계승하여 가급적 군사(軍事)에는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데 다음과 같은 언급에는 가업인 유학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

3) 이상의 내용은 정재사·노경희 역주(2011), 《譯註 顏氏家訓(1,2)》, 전통문화연구회, 〈해제〉 참조.

안씨 선조들은 본디 추로(鄒魯) 지역에서 살다가 일부는 나뉘어 제 지역으로 들어가서 대대로 유가의 올바른 도리를 가업으로 삼고 살아왔음이 각종 기록에 두루 나와 있다. 공자의 문인으로 승당(昇堂)한 이가 72인인데 안씨가 그중에 여덟이며 진(秦), 한(漢), 위(魏), 진(晉)에서 제(齊), 양(梁)에 이르기까지 용병(用兵)으로 현달(顯達)한 이는 없었다.⁴⁾

그러나 안지추의 유학은 공허한 장구지학(章句之學)이 아니라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천적인 유학이었다.⁵⁾ 그는 특히 〈면학(勉學)〉편에서 이 점을 강조하여 독서와 학문 행위가 난세에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됨을 역설한다.

무릇 육경(六經)의 요지를 밝히고 백가(百家)의 서적을 섭렵하는 것이 설사 덕행을 증익(增益)시키거나 풍속을 고무(鼓舞)시켜 줄 수는 없다 치더라도, 오히려 한 가지 기예(伎藝)로 삼아 그것으로 자신이 살아갈 밑천을 얻을 수는 있다. 부모와 형제도 영원히 의지할 수는 없고 향리나 국가도 항구히 보전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하루아침에 떠도는 신세가 되면 비호해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서 마땅히 홀로 자신에게서 방도를 찾아야 할 뿐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천만금 쌓아놓은 재물도 제 몸에 지닌 하찮은 기예만 못하다.”고 하였다. 기예 가운데서 쉽게 익힐 수 있으면서도 귀하게 여겨질 만한 것으로서는 독서를 능가할 것이 없다.⁶⁾

안지추의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태도는 불교, 도교 등 당시 유학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던 종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입장을 갖게 하였다. 특히 그는 〈귀심(歸心)〉편에서 불교를 내교(內敎), 유학을 외교(外敎)라 불리 유불을 체용(體用)관계로 파악하거나, 불교의 계율인 오금(五禁)을 유가의 오상(五常)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불살생(不殺生)의 마음을 인(仁)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유불의 회통(會通)을 모색하기도 하며⁷⁾, 〈종제(終制)〉편에서는 심지어 제사를 폐하고 불교식으로 추념(追念)하라는 유언을 하는 등⁸⁾ 불교에 대한 정신적 의지(依支)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나아가 안

4) 《顏氏家訓》〈誠兵〉“顏氏之先，本乎鄒魯，或分入齊，世以儒雅爲業，遍在書記。仲尼門徒，昇堂者七十有二，顏氏居八人焉。秦漢魏晉，下逮齊梁，未有用兵以取達者。”

5) 노인숙(2009), 〈‘안씨가훈’의 유학적 특징〉, 《동양철학연구》 제60집, p.293.

6) 《顏氏家訓》〈勉學〉“夫明六經之指，涉百家之書，縱不能增益德行，敦厲風俗，猶爲一藝，得以自資。父兄不可常依，鄉國不可常保，一旦遊離，無人庇蔭，當自求諸身耳。諺曰，積財千萬，不如薄伎在身。伎之易習而可貴者，無過讀書也。”

7) 《顏氏家訓》〈歸心〉：“內外兩敎，本爲一體，漸極爲異，深淺不同。內典初門，設五種禁，外典仁義禮智信，皆與之符。”

지추는 불교를 대중적으로 포교하기 위하여 불교설화집인 《원혼지(冤魂志)》를 편찬하기도 하였는데⁹⁾ 그의 이러한 불교에의 경도(傾倒)는 일부 학자들로 하여금 그의 내면상태를 사상 혹은 문화심리상의 모순으로 진단케 하는 근거가 되었다.¹⁰⁾

불교와 달리 도교에 대해 그는 선별적 수용의 입장을 취하였다. 가령 위진 이래 유행한 청담(淸談)의 기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무릇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책은 대개 진성(眞性)을 보전하고 본성을 함양하는 것이니 외물(外物) 때문에 자신에게 누를 끼치려 하지 않는다 …… 하안(何晏)과 왕필(王弼)이 노장(老莊)을 본받아 전술(傳述)하자 마침내 서로 번갈아 크게 떠받들어 그림자가 따라붙고 풀들이 한데로 쓰러지듯이 모두가 신농씨(神農氏)와 황제(黃帝)의 교화가 제 몸에 있다고 어길 뿐 주공(周公)과 공자의 학업은 포기하고 도외시하였다 …… 그 나머지 속세의 더러움에 속박되고 명리(名利)의 아래에 허우적거리던 이들에 대해 어찌 일일이 다 거론하겠는가. 그저 그들은 고상한 담론의 형식으로 허황된 이치를 탐색하느라 주인과 손이 서로 묻고 답하며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할 뿐이었으니 세상을 구제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요체(要諦)는 아니었던 것이다.¹¹⁾

안지추는 이처럼 청담을 공리공담(空理空談)으로 배척하였으나 〈지족(止足)〉편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아는(少欲知足)” 노자의 취지를 고취하고 〈양생(養生)〉편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교의 양생, 신선술(神仙術)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신선의 일은 다 거짓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사람의 수명이 하늘에 달려 있어 어찌면 신선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 …… 정신을 보양하고 호흡을 잘 조절하며 생활을 절제하고 기운에 잘 적응하면서 음식을 가려먹고 약물을 잘 써서 천수를 누려 요절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¹²⁾

8) 《顏氏家訓》〈終制〉: “四時祭祀, 周孔所教, 欲人勿死其親, 不忘孝道也, 求諸內典, 則無益焉, 殺生爲之, 纔增罪累. 若報罔極之德, 霜露之悲, 有時齋供, 及七月半盂蘭盆, 望於汝也.”

9) 《冤魂志》는 全 5卷으로 불교를 宣揚하는 취지를 지녔으나 冥界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 다른 지괴 작품들과 구별된다. 오히려 당시의 혼란한 세태를 반영하는 이야기들이 다수 있어 주목된다. 王枝忠, 〈顏之推與'冤魂志'〉, 《文學史話》, pp.45-46.

10) 이와 관련된 논구로는 陳東霞(1999), 〈從顏氏家訓看顏之推的思想矛盾〉, 《松遼學刊(社會科學版)》, 제3기 참조.

11) 《顏氏家訓》〈勉學〉 “夫老莊之書, 蓋全眞養性, 不肯以物累己也 …… 何晏王弼, 祖述玄宗, 遞相誇尙, 景附草靡, 皆以農黃之化, 在乎己身, 周孔之業, 棄之度外 …… 其餘桎梏塵滓之中, 顛仆名利之下者, 豈可備言乎. 直取其淸談雅論, 剖玄析微, 賓主往復, 娛心悅耳, 非濟世成俗之要也.”

12) 《顏氏家訓》〈養生〉 “神仙之事, 未可全誣, 但性命在天, 或難鍾值 …… 若其愛養神明, 調護氣息, 慎

안지추의 이러한 사상적 다기(多岐)함과 복잡성(複雜性)은 그의 내면상태의 모순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니라 크게는 그 원인을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상적 경향이었던 유, 불, 도 삼교합일(三教合一) 사조에서 찾아야 하고 작게는 난세에 처한 안지추 자신의 실천적 처세철학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안지추는 가업이자 삼교 중에서 가장 현실적 성격이 강한 유학을 생활의 원리로 삼고 불교의 종교적 취지에 마음을 의지하였으며 도교의 양생, 신선술을 건강 유지의 방법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그가 무엇보다도 난세에서의 생명 보전 곧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기 때문이다.

4. 갈홍(葛洪)과의 비교

갈홍(葛洪)은 자가 치천(稚川)으로 단양(丹陽) 구용(句容) 사람이다. 포박자(抱朴子)는 별호인 동시에 그의 저서 이름이기도 하다. 그는 서진(西晉) 무제(武帝) 태강(太康) 4년(283)에 태어나 동진(東晉) 강제(康帝) 건원(建元) 원년(343)에 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살았던 시기 역시 난세로 팔왕(八王)의 난, 호족(胡族)의 침입 등에 의해 서진이 붕괴하고 남도(南渡)하여 동진이 성립되는 등 안지추 당시보다 상황이 그리 좋을 것 없었다. 갈홍은 종조부인 갈현(葛玄)이 삼국시대의 유명한 도인이었으며 젊었을 때 신선가 포정(鮑靚), 정사원(鄭思遠) 등을 사사하여 비술을 전수받은 후 《포박자》를 저술하였다. 그리고 불사약인 금단(金丹)을 제조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광주(廣州)의 나부산(羅浮山)에 정착하였다. 그는 10여년간 그곳에서 신선술에 전념하여 마침내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갈홍의 후손은 갈소보(葛巢甫) 등의 신선가를 배출하여 갈씨도(葛氏道)라는 도교의 계파를 형성한다. 갈홍 역시 안지추처럼 난세에 삶을 잘 보전하고 그 영향을 후손에 긍정적으로 미친 케이스라 하겠다.

안지추는 이미 〈지족〉편, 〈양생〉편 등에서 도교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표시했지 만¹³⁾ 그가 직접 갈홍의 저작인 《포박자》를 읽고 그 영향을 받아 언급했으리라고 추측되는 대목으로는 가령 〈양생〉편에서 “신선의 일이 다 거짓일 수는 없겠으나(神仙之事, 未可全誣)”라고 말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대목은 아마 《포박자》 〈논선(論仙)〉편 등에서 전개된 신선실재론(神仙實在論) 및 신선가학론(神仙可學論)의 영향 하에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근거는 다음의 글이다.

節起臥，均適寒暄，禁忌食飲，將餌藥物，遂其所稟，不爲夭折者，吾無間然。”

13) 顏之推의 아버지 顏協이 晋代의 신선설화를 수록한 《晋仙傳》이라는 책을 지었다고 하나 逸失되어 전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顏之推의 집안에 도교적인 氣風이 얼마간 존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는 일찍이 이가 아파서 흔들리며 빠지려 하고, 차고 더운 것을 먹거나 마시면 늘 통증 때문에 괴로웠다. 《포박자》에서 치아 단단하게 하는 법을 보았더니 아침에 이를 300번 두드리면 좋다고 하기에 며칠 그대로 하였더니 바로 효험이 있어 지금도 내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소한 방법들은 손해 볼 일도 없고 하니 잘 익혀놓을 만하다.¹⁴⁾

갈홍은 안지추와는 달리 도교의 가풍에서 성장하고 그 교육을 받았으므로 도교를 근본으로 하고 그 위에 실천적인 삶도 고려하여 유가를 보완적인 위치에 놓는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포박자》 〈자서(自敘)〉편에서는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되어있는 《포박자》의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편은 신선, 약 처방, 귀신과 요괴, 변신, 건강, 장수, 귀신 쫓는 법, 재앙을 물리치는 법 등의 일을 말하여 도가에 속하고 외편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 세상일의 옳고 그름을 말하여 유가에 속한다.¹⁵⁾

이러한 도본유말(道本儒末)의 입장은 안지추가 불교를 내교로, 유교를 외교로 간주하였던 상황과 비슷하다. 갈홍은 또한 안지추가 유가의 비현실적 장구지학을 공격하고 도가의 공리공담을 비판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들 양자를 취급한다. 《포박자》 〈응조(應嘲)〉편에서 그는 장자의 언설에 대해 이같이 논박한다.

항상 원망스럽게 여기는 바이지만 장자는 세상의 일을 속박이라고 스스로 뽑내는 언행을 하였다. 그는 칠원(漆園)에 살면서 맹랑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마치 귀신 그리는 일을 좋아하고 개나 말을 그리는 일을 싫어하는 것과 같다. 충정(忠貞)을 하찮게 여기고 인의(仁義)를 헐뜯었는데 호랑이를 조각하고 용을 그려서 바람과 구름을 불러올 수 없고 널조각에 쓴 억만(億萬)이라는 숫자가 돈 없는 것을 구제할 수 없고 어린애들의 죽마(竹馬)가 다리가 벗겨지는 병을 고칠 수 없고 책상위에 가득 놓인 흙 쟁반이 배고픔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¹⁶⁾

14) 《顏氏家訓》 〈養生〉 “吾嘗患齒，搖動欲落，飲食熱冷，皆苦疼痛。見抱朴子牢齒之法，早期叩齒三百下爲良，行之數日，即便平愈，今恒持之。此輩小術，無損於事，亦可脩也。”

15) 《抱朴子》 外篇 卷 50, 〈自敘〉 “其內篇言神仙方藥鬼怪變化養生延年禳邪却禍之事，屬道家。其外篇言人間得失世事臧否，屬儒家。”

16) 《抱朴子》 外篇 卷 42, 〈應嘲〉 “常恨莊生言行自伐，桎梏世業，身居漆園而多誕談，好畫鬼魅，憎圖狗馬，狹細忠貞，貶毀仁義。可謂彫虎畫龍，難以徵風雲，空板億萬，不能救無錢，孺子之竹馬，不免於脚剝，土拌之盈案，無益於腹虛也。”

갈홍은 여기에서 장자의 언설을 공론(空論)이라 비판하고 오히려 충정, 인의 등 유가의 덕목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갈홍이 신선을 목표로 하는 도교에 뜻을 두고 있으면서도 난세의 상황에서 현실 생존의 토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도교 내부의 공리공담을 비판하고 유가 현실주의를 보완책으로 취택했음을 알 수 있다.

5. 결어(結語)

위진남북조라는 유례없는 난세의 지식인인 안지추는 세 번 나라가 망하고, 세 번 포로가 되는 신세를 겪는 위기의 연속 상황에서도 유자(儒者)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능히 자신의 몸을 보전했을 뿐만 아니라 《안씨가훈》을 통해 그 노하우를 전해 자손의 영달까지 도모하였다. 《안씨가훈》에 담긴 그의 사상을 살펴보면 안지추는 이용후생의 실천 유학을 바탕으로 도교 양생술을 건강 유지의 방법으로 수용하였으며 불교를 심령의 최후 귀숙처(歸宿處)로 삼았는데 이에 앞서 장구지학, 청담 등 유, 도의 공소(空疎)한 분야를 철저히 비판하여 한 치도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난세의 처세 철학을 정립하였다.

안지추보다 앞선 난세를 살았던 갈홍의 경우에도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보게 되는데 그는 안지추와는 달리 도교를 바탕으로 유학을 현실 생활의 원리로 채택하는 도본유말의 통합적 사상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그 역시 난세의 풍운 속에서 소기(所期)한 바의 삶을 살았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보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한 양자의 이러한 자세는 사상적 융합이야말로 난세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낳기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 평상시와는 달리 난세에는 결코 단방(單方)의 사상적 처방을 고수해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며 대척적인 입장에 있는 사상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지녀야 길이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갈홍과 안지추는 몸소 입증해 보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武經七書(直解)》의 간행과 활용의 양상

盧永九(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1. 머리말
2. 조선전기 《武經七書》의 간행과 《武經七書直解》의 도입
3. 壬辰倭亂 이후 중국 兵學의 유입과 《武經七書直解》의 간행
4. 조선후기 《武經七書直解》의 增補와 조선 兵學化
5. 맺음말 : 《武經七書直解》 완역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머리말

《손자》 등 《무경칠서》를 구성하는 7종의 병서는 단순한 고대에 사용된 전술 지식을 담은 兵家類 서적만이 아닌 동아시아 지역 전략전술의 내용을 수록한 고전으로 의미가 매우 높다. 근래에는 서구의 여러 국가에서 《손자병법》을 교리와 군사작전 수립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전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영, 자기계발 등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번역서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번역을 살펴보면 다양한 역대 주석서 등을 활용한 내용이 충실한 번역은 그다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자의적인 해석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번역의 주요 대상이 되는 定本이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원본에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상 《무경칠서》는 고려시대에 도입된 이후 일찍부터 다양한 형태로 편찬 간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무과의 주요 과목이 되면서 이 책에 대한 다양한 역주 등이 시도되었다. 특히 중국의 《무경칠서직해》 등 여러 판본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이를 종합하여 조선본 《무경칠서》의 편찬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조선시대 《무경칠서》의 간행과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대체로 무과와 관련하여 검토되거나¹⁷⁾ 조선초기 《무경칠서》가 조선의 통치이념과 관련하여 그 배경으로 설명한 연구가 눈에 띈다.¹⁸⁾ 또한 조선의 병학 전반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

17) 곽낙현(2009), 〈무경칠서를 통해 본 조선전기 무과시취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34

18) 장학근(1996), 〈선조 《武經七書》의 도입 배경〉, 《동서사학》 2

적으로 《무경칠서》가 언급되는 정도이다.¹⁹⁾ 서지학 방면에서는 여러 판본의 《무경칠서》를 계통적으로 정리하거나 여러 병서를 내용상 분류하는 연구가 보인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시대 《무경칠서》의 간행과 활용 양상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시기별 《무경칠서》의 다양한 편찬 및 판본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조선후기 이루어진 《무경칠서》 이해의 수준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향후 《무경칠서》 연구, 定本化 및 역주의 방향성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선전기 《武經七書》의 간행과 《武經七書直解》의 도입

조선 태조 즉위 교서에 ‘訓練觀에서 때때로 《武經七書》와 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등급을 정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이미 《무경칠서》가 도입되고 무인들의 학습에 참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⁰⁾ 宋 仁宗대인 11세기 중반 편찬된 《무경칠서》가 언제 우리에게 도입되었는지는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고려사》에, 《무경칠서》에 포함되는 《육도》·《삼략》·《사마법》이 보일 뿐만 아니라 선종 8년(1091) 고려 사신이 송에서 귀국하면서 《兵書接要》 등 120여종의 서적이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무경칠서》 간행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고려에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그러나 12세기 이후 《무경칠서》의 도입과 편찬, 간행 및 이를 통한 병학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 들어와 《무경칠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이는 태종 2년 처음으로 무과가 시행되고 그 과목 중 《무경칠서》가 최초로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다.²²⁾ 이 때 《무경칠서》는 1등 급제의 필수 조건으로 포함되었으나 2, 3등 합격에는 아직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후 무과 체제가 정비되면서 무예를 먼저 시험보아 합격한 자 100명 중 《무경칠서》 가운데 1책을 자원하여 시험하도록 규정이 정비되는 등 무과에서 《무경칠서》는 필수적인 과목이 되었다.²³⁾ 이처럼 《무경칠서》는 무과 시험의 주요한 講書 과목이었으므로 무인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익혔다. 무과 시험과목으로서 《무경칠서》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이를 편리하게 익힐 수 있도록 1452년(端宗 즉위년) 후일 세조가 되는 首陽大君은 崔恒 등에게 명하여 10권 5책의 《武經七書註解》를 편찬

19) 노영구(2002), 〈조선후기 병서와 전법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 《太祖實錄》 권1, 태조 원년 7월 丁未.

21) 《高麗史》 세가 선종 8년

22) 《太宗實錄》 권3, 태종 2년 정월 己丑.

23) 《文宗實錄》 권6, 문종 원년 2월 丁丑.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초기 조선의 《무경칠서》 이해나 그 활용의 수준은 그다지 높지는 못하였다.

조선초기 《무경칠서》 이해의 수준은 최항의 《무경칠서주해》 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책의 편찬 전까지 조선에 《十一家註孫子》는 전해지고 있었으나 그 내용 상의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았고, 나머지 6서는 註解가 없어 무인들이 이를 익히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²⁴⁾ 이는 세조의 서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무경칠서주해》는 기본적으로 무인들의 학습을 위한 목적에서 口訣과 주해를 한 수준에서 편찬된 것으로서 수준 높은 병학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²⁵⁾ 이러한 양상은 조선초기 편찬된 여러 병서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조가 직접 집필하고 申叔舟, 최항 등이 주해를 붙여 세조 8년(1462) 2월 완성한 《兵將說》을 보면 본문의 글자에 대한 주석을 붙이고 이어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무경칠서》와 유학의 六經 등에 수록된 관련 구절을 인용하여 《병장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²⁶⁾ 그러나 인용된 《무경칠서》 내용을 보면 새로운 해석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15세기 중반까지 《십일가주손자》 이외에 《무경칠서》의 병서에 대한 다양한 주석본이나 판본이 도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병학의 이해 수준도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에는 《무경칠서》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인 송나라 시대 施子美의 《施氏七書講義》도 소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무과 과목으로서 《무경칠서》 채택과 《무경칠서주해》 편찬과 간행 등을 계기로 조선의 병학 이해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세조 10년 《무경칠서》의 주석 보완이 이루어진 것²⁷⁾과 민간에 있던 《무경칠서》를 거두었다가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이러한 상황에서 15세기 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체제의 《무경칠서》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1495년(연산군 1) 12월 강시보가 바친 《무경칠서》가 도입되었다.²⁹⁾ 이때 도입된 《무경칠서》가 어떤 판본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연산군일기》에 《무경칠서》가 도입된 사실이 특기된 것을 보면 이전에 조선에 보급된 《무경칠서》와는 다른 새로운 체제 또는 주해본 《무경칠서》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명나라 시기는 중국 역대 병학의 부흥기로서 다양한 형태의 병서가 출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24) 《太虛亭集》 권2, 〈武經跋〉

25) 《增補文獻備考》 권115, 병서 〈무경칠서주해〉

26) 《兵將說》 〈御製兵將說序〉

27) 《世祖實錄》 권34, 세조 10년 9월 戊午.

28) 《世祖實錄》 권38, 세조 12년 2월 己丑.

29) 《燕山君日記》 권11, 연산군 원년 12월 辛亥.

내용도 전쟁에 필요한 것과 밀접히 결합된 구체적인 특징을 띠고 있었다.³⁰⁾ 명나라는 건국 초기인 14세기 말 劉寅의 《武經七書直解》가 편찬된 이래 16세기 들어 王守仁 批注 《武經七書》(1543년, 嘉靖22)와 鄭廷鵠이 注를 단 《武經七書》(1553년, 嘉靖 23) 등이 차례로 편찬되었다.

연산군 초 조선에 알려진 《무경칠서》는 어떠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유인의 《무경칠서직해》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앞에서 보듯이 명 초기 편찬된 《무경칠서직해》 이후 16세기 중반까지 한동안 《무경칠서》의 새로운 주석본 등이 출판되지 않았던 점과 함께 《무경칠서직해》가 편찬 이후 한동안 제대로 간행되지 못하고 유통되다가 1486년(성화 22) 李敏에 의해 간행되고 널리 유통된 점을 들 수 있다.³¹⁾ 현존하는 명대 《무경칠서직해》의 대부분이 李敏의 간행본임을 고려한다면, 간행 후 9년이 지난 시기 조선에 전해진 것은 李敏의 간행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³²⁾ 현재 淸芬室書目에 중종대 간행된 《孫武子直解》 殘本 1책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³³⁾ 15세기 말 《무경칠서직해》가 도입되고 이후 조선에서 간행 보급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 중종 13년(1518) 변방 각 鎭堡의 權管과 軍官들에게 《손자》·《오자》·《무경》 등을 인출하여 보내도록 하기도 하였다.³⁴⁾ 새로운 《무경칠서》인 《무경칠서직해》가 도입 보급되면서 조선의 병학에 대한 이해는 더욱 깊어졌다.

15세기 말 새로운 《무경칠서(직해)》가 조선에 도입 간행되고 이해가 깊어진 것은 16세기 이후 조선의 군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중종대 들어서면서 왜구의 동향은 점차 심상치 않았는데 중종 5년(1510) 삼포와 대마도의 왜인들이 남해안의 여러 지역을 침입한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여러 차례 왜변이 일어났다. 특히 중종 후반기 조선의 강력한 화약 병기 禁秘策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명나라와 포르투갈인을 통해 火藥 무기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다. 게다가 명나라의 선박 제조 기술을 배워 이전보다 견고한 선박을 제조하게 되면서 조선은 이에 대처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³⁵⁾

30) 謝詳皓(1998), 《中國兵學(宋元明清卷)》, 山東人民出版社, pp.270~274. 명대 《무경칠서》는 단순히 무과의 과목으로 무관 선발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군사 지휘관 교육과 군사력 사용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무경칠서》의 원 내용은 정당한 전쟁론이나 방어적, 비폭력적 전략을 선호하고 있지만, 명대 편찬된 《무경칠서》의 여러 판본과 주석서 등은 오히려 공세적이고 현실주의적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명의 공세적 군사력 사용의 주요한 전략문화적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31) 《武經直解》〈武經直解序〉(《中國兵書集成》 10, 19면)

32) 謝詳皓(1998), 앞의 책, p.276.

33) 김두중(1974),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p.180.

34) 《中宗實錄》 권34, 중종 13년 7월 甲子.

화기로 무장하기 시작한 일본의 위협이 증대하면서 火炮 제작과 함께 새로운 전술을 담은 병서 간행 요구도 나타났다. 중종 21년(1526) 7월에 永興府使 徐厚는 군대에 필요한 規模를 수집해서 만든 《軍門要覽》 1질과 《將訓元龜》 수십 권, 그리고 《孫子》의 옛 주석에다 여러 史書의 내용을 추가한 《增損孫武經註疏》 등을 바쳤다.³⁶⁾ 그는 이전에 무게 백 근의 强弩와 克敵弓, 鞭條箭 등 새로운 체제의 弓矢를 고안하기도 하였고, 霹靂砲와 같은 신형 화포를 제작하기도 한 인물이었다.³⁷⁾ 새로운 무기 특히 화포의 제조와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徐厚에 의한 여러 私撰 병서의 편찬은 화포가 점차 많이 사용되는 새로운 전쟁 양상의 대두로 인해 이전과 다른 전술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 초기 전술을 담은 《陣法》에 나타난 전술 이외에 새로운 전술이 요구되었던 16세기의 상황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종 31년(1536) 4월 중종은 金謹思에게 전교하기를,

평상시 군대를 敎閱할 때에는 五行陣法(=五衛陣法)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무사들이 오행진법 외에는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았으므로 長蛇陣, 鶴翼陣, 魚鱗陣, 鳥雲陣, 偃月陣, 却月陣 등과 같은 陣形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 그러므로 卿과 曹閔孫·尹任 등이 함께 榻前에 나아와서 지금 여기에 들어와 활을 쏘는 무신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진법을 강론하게 하라.³⁸⁾

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달에는 모화관에서 국왕이 직접 군사를 敎閱하면서 偃月陣, 魚鱗陣 등과 같은 여섯 가지 陣形을 시험하기도 하였다.³⁹⁾ 이러한 陣形은 《무경칠서》 등에 언급되었던 고대 진법들로서 이는 그 이전 《무경칠서》의 간행과 역주, 그리고 여러 판본의 도입 등 조선의 《무경칠서》 이해 수준이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

이후 명조 2년 4월 사신으로 북경에 간 鄭應斗가 송대의 대형 병서인 《武經總要》를 구입하여 명종에게 바치니 명종은 곧 이를 印出하게 하였다.⁴⁰⁾ 《武經總要》는 北宋 시대인 1047년에 曾公亮과 丁度 등이 편찬한 총 40권의 병서로서 選將, 훈련, 편성, 진법, 보병과 기병의 응용, 水戰, 축성 및 성곽전투, 무기와 장비 등 兵學 전반에 대해 기술하

35) 허선도(1984), 〈조선전기 火藥兵器의 발달 및 禁秘策〉, 《東洋學》, pp.490~502.

36) 《中宗實錄》 권57, 중종 21년 7월 丁酉.

37) 《中宗實錄》 권41, 중종 16년 정월 己巳. 徐厚가 火炮 등의 제도에 능통하였으므로 중종은 그에게 원나라 시대에 간행된 병서로서 火炮에 관한 내용이 많이 수록된 《聖製攻守圖說》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中宗實錄》 권51, 중종 19년 8월 辛丑)

38) 《中宗實錄》 권81, 중종 31년 4월 癸丑.

39) 《中宗實錄》 권81, 중종 31년 5월 乙丑.

40) 《明宗實錄》 권5, 명종 2년 4월 乙酉.

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중국 병서사상 최초로 당시의 火器, 火藥의 사용과 제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⁴¹⁾ 明宗대 《무경총요》의 도입과 간행 움직임은 조선의 기존 전술과 무기 체계로는 점차 위협이 증가하는 일본 등에 대해서 점차 대처하기에 곤란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이미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위)진법》에 바탕을 둔 조선의 기존 전술 체계의 전면적인 변화는 이 시기 나타나지 못하였다. 대신 기존에 알려진 병서의 추가 간행과 화약무기 관련 병서의 편찬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明宗 20년(1565) 함경도 三江郡에서 印刊한 것으로 알려진 《銃筒式》은 화약무기 관련 병서에 대한 관심의 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는 16세기 후반 간행된 조선의 《무경칠서》 계열 병서가 일부 소장되어 있다. 명종 13년(1558) 丙子字로 간행된 《十一家註孫子》 2권이 前田尊經閣에, 을해자로 간행된 선조 7년(1574)의 內賜記가 붙은 《사마법직해》, 《율료자직해》, 《육도직해》 각 2책이 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⁴²⁾, 15세기 말 《무경칠서직해》가 도입된 이후 조선에서 각 병서별로 간행 보급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군사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壬辰倭亂 이후 중국 兵學의 유입과 《武經七書直解》의 간행

미증유의 동아시아 세계전쟁이었던 임진왜란은 조선의 병학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전쟁은 이전까지 구축하였던 동아시아 3국의 군사적 능력과 전술의 양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여러 전투를 통해 확인된 상대의 우수한 전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이후 다양한 병서의 도입과 간행으로 나타났다. 조선의 경우 기존의 기병 위주의 전술로는 임진왜란 초기 전투에서 일본의 조총 및 단병 전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1593년 정월 평양성 전투를 통해 명군의 새로운 전술인 浙江兵法이 일본군에 매우 효과적인 것을 확인한 조선은 그 내용이 수록된 戚繼光의 《紀效新書》 입수에 노력하게 된다.⁴³⁾ 임진왜란 중 절강병법의 편성과 훈련 방법에 따라 조선의 군사제도는 완전히 일신되었다. 임진왜란 기간 중 조선의 군사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기효신서》는 1597년(선조 30)을 지나면서 점차 그 효용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다양한 전투를 통해 절강병법이 반드시 일본군에 대해 효과적인

41) 劉慶(1994), 《中國宋遼金夏軍事史》, 人民出版社, p.195.

42) 김두중(1974), 《앞의 책》 158, p.194.

43) 노영구(1997),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군사》 34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아울러 다양한 《기효신서》의 판본이 도입되고 내용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척계광에 대한 관심과 《기효신서》 편찬의 배경이 되었던 중국의 다른 병서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조선의 병학 전반의 수준이 향상되고 다양한 병서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앞서 보았듯이 조선전기 武科와 都試의 講書 과목으로 《武經七書》와 《將鑑博議》 등이 있었지만, 임진왜란 직전까지 조선의 武士들은 대체로 무예만 익혀 무과에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⁴⁴⁾ 장수가 되어서도 병법에 대한 소양이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무사 선발에 있어서 兵書에 능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기효신서》 이외의 각종 병서, 특히 《武經七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⁴⁵⁾ 다음의 자료는 이를 잘 보여준다.

대개 《孫子》·《吳子》는 마치 四書의 《논어》·《맹자》와 같고, 《(武經)要覽》 등 여러 책들은 마치 四書의 뜻을 드러내어 밝힌 宋儒들의 저술과 같으니, 兵法을 배우는 자는 먼저 《손자》·《오자》의 大義를 통한 뒤에 《(武經)要覽》 등을 참고하여 그 뜻을 發明해야 할 것입니다.⁴⁶⁾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孫子》, 《吳子》 등의 병서가 심지어 四書에 비견되기도 하였다. 즉 장수에 대한 교육에서 兵書를 매우 중요시하여 병서를 유학자들의 經書와 같은 체계를 가진 것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이는 이전에 무사들에게도 유교 경전을 강조하던 것과는 달리, 보다 전문적인 장수 양성이 중요해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武科 覆試의 講經에서 《무경칠서》 등의 시험이 재차 강조되기도 하였다.⁴⁷⁾ 이에 따라 기본 兵書인 《孫子》 등의 재간행과 교육이 강조되자 《武經七書》에 수록된 《孫子》 이외의 주요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던 《十一家註孫子》도 주목되었다. 따라서 전란으로 인해 그다지 남아 있지 않던 《十一家註孫子》의 재간행이 추진되었다.⁴⁸⁾

《武經七書》 등 기본적인 兵書에 대한 교육은 장수들에게 兵法을 이해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紀效新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紀效新書》가 지닌 병법 상의 여러 한계점에 대해서도 점차 분명한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수 양성

44) 《宣祖實錄》 권71, 선조 29년 정월 甲申.

45) 《宣祖實錄》 권56, 선조 27년 10월 戊辰.

46) 《宣祖實錄》 권131, 선조 33년 12월 丙子.

47) 《宣祖實錄》 권134, 선조 34년 2월 丁酉.

48) 《宣祖實錄》 권129, 선조 33년 9월 癸丑.

을 목적으로 병서 교육이 강화됨과 아울러 《紀效新書》 이외의 다양한 중국의 兵書가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선조 33년 12월 이전까지 조선에 《紀效新書》 외에도 《武經要覽》·《練兵實紀》·《握機橐籥》·《百戰奇法》·《行軍須知》 등 다양한 중국의 병서들이 입수되었다.⁴⁹⁾ 이 병서들은 주로 조선에 파병온 명나라 장수를 통해서 입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握機橐籥》은 명나라 左協副總兵 李芳春이 1592년 조선에 원병으로 왔을 때 가지고 온 것을 昭義將 林權이 얻어다가 이듬해 간행하고 있다.⁵⁰⁾ 《百戰奇法》은 명나라 학자 章潢(1526-1607)이 편집한 《圖書篇》에 수록된 것으로 《武經七書》 중에서 用兵하는 요점만을 뽑아 100가지 항목으로 재편집하고 여기에 역사적 사례를 덧붙인 병서이다. 1599년 명나라 王鳴鶴이 편찬한 병서인 《登壇必究》에도 그중 50항목이 수록되어 있다.⁵¹⁾ 아마도 《登壇必究》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 책도 입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行軍須知》는 조선 초기에 이미 조선에 전래되었으나 산실되고 이 시기에 다시금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중국의 병서 입수를 위한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게 되면서 선조 후반기에는 체계적인 병서 교육도 함께 시도되었다.⁵²⁾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젊은 무사를 가려 《陣書》·《孫子》·《吳子》 등의 병서와 함께 《左傳》·《通鑑》·《宋鑑》 등 각종 史書 교육도 아울러 요구되었다.⁵³⁾ 중국의 병서 도입과 병서 교육의 강화, 그리고 《무경칠서》 등 병서에 대한 이해의 심화는 이 무렵(선조 36년) 韓孝純이 편찬한 《陣說》과 《신기비결》에 그 성과가 드러난다. 《陣說》은 장수들이 전투에 운용하게 되는 여러 陣形 중에서 특히 《陣法》·《紀效新書》에서 언급하고 있는 八陣, 六花陣, 鴛鴦陣, 梅花陣, 三才陣 등의 진법을 소개하고 군사 편제[分數], 行軍, 명령 전달[傳令], 각종 진법 훈련의 절차 등을 간략히 수록하고 있다. 이어서 李靖, 太公, 胡安國, 曹操 등 諸家の兵法를 덧붙이고 있다.⁵⁴⁾ 《神器秘訣》은 뒷부분의 〈諸家兵法附〉에는 병법상 필요한 내용을 〈編伍解〉, 〈明活法〉, 〈兵勢〉, 〈謀攻〉 등 103장으로 나누고 《기효신서》의 내용을 담은 52장과 함께 《六韜》·《三略》 21장, 《孫子》 13장, 《尉繚子》 17장으로 정리 수록되어 있다. 즉 《진설》과 《신기비결》을 통해 당시 조선이 武士 특히 초

49) 《宣祖實錄》 권132, 선조 33년 12월 丙子.

50) 《石洲集》 별집 권2, 〈刻握機橐籥序〉

51)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85), 《百戰奇法》. 《百戰奇法》은 일명 《百戰奇略》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확한 편찬자와 편찬 시기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 사례가 대체로 五代 이전의 사례를 모은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대체로 宋代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徐子宏 等編(1993), 《中國兵書十種》, 湖南出版社, pp.203-204.)

52) 《宣祖實錄》 권142, 선조 34년 10월 壬辰.

53) 《宣祖實錄》 권165, 선조 36년 8월 癸丑.

54) 《陣說》 27면.

학자에 대한 병서 교육을 위해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아직 조선의 병학 수준이 새로운 체계의 병서를 편찬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종류의 병서를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임진왜란 이후 병학 교육의 강화에 따라 선조 40년(1607)에는 전쟁으로 인해 완질이 보관되어 있지 않던 《무경칠서》를 보완하여 을해자와 경진자로 인쇄하도록 하였다.⁵⁵⁾ 아울러 선조는 무사들에게 병서를 가르칠 교육 기관으로 武學을 설치하고 教授를 두어 장수를 육성시키는 법을 만들도록 하였다.⁵⁶⁾

선조 40년에 《무경칠서》를 보완하여 인쇄한 것은 《무경칠서직해》로 보이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훈련도감에서 인쇄된 《武經直解》의 앞부분(77장) 일부가 남아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六韜直解》 1책(가람 古貴355-Y4y)이 남아 있다. 《무경직해》와 《육도직해》는 庚辰字로 인쇄된 것으로 선조 40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을해자로 훈련도감에서 간행한 《六韜直解》 4~6권이 남아 있는데, 대체로 선조 40년 이후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훈련도감에서 자체 물력을 이용하여 활자를 제작하여 각종 병서류 서적의 간행을 주도한 것을 보면 훈련도감에서 《무경칠서직해》에 속한 다른 병서와 함께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조 24년(1646) 4월에 일본에서 《무경칠서직해》 1질을 조선에 요구한 것을 통해 이 책의 간행 사실이 일본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상당히 널리 보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⁷⁾ 다만 그 내용은 유인의 《무경칠서주해》를 그대로 간행한 것으로 조선에서 내용상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을 보면 조선 병학의 수준이 아직 이 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조선후기 《武經七書直解》의 增補와 조선 兵學化

17세기 초 무인들에 대한 병학 보급과 교육을 위해 《무경칠서직해》가 훈련도감을 통해 간행 보급되면서 《무경칠서》는 당시 조선 지식인의 經世觀에 주요한 근거로서 제시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⁵⁸⁾ 인조대 들어서는 병법 교육의 강화를 위해 인조 7년 정월 能磨兒廳이 설치되었는데 능마아청은 총융부, 훈련원의 낭청

55) 《宣祖實錄》 권210, 선조 40년 4월 乙未.

56) 《光海君日記》 권11, 광해군 즉위년 12월 癸酉.

57) 《仁祖實錄》 권47, 인조 24년 4월 庚寅.

58) 이에 대해서는 김홍백(2014), 〈유몽인의 경세의식과 산문세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51~53. 참조.

과 內三廳의 禁軍 또는 각 大將의 軍官에게 병법 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관서였다.⁵⁹⁾ 이 시기는 정묘호란 직후로서 조선이 후금의 재침에 대비하여 다양한 전술적 논의와 시도가 나타나던 때로서 능마아청의 설치는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병학 연구 및 전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인조 초에는 조선 사회에서 《무경칠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이 책의 내용에 통한 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이 책을 암송할 정도였다고 한다.⁶¹⁾

그러나 《무경칠서》는 군사 고전이라는 성격상 실제 군사들의 훈련에는 직접 이용되지 못하였다. 당시 훈련도감의 군사들에게는 《기효신서》의 병법만을 가르치고 다른 이전의 병법은 시행하지 않았다.⁶²⁾ 특히 병자호란의 패배 이후 인조 후반기 조선의 무신들은 무예와 陣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병학의 수준이 오히려 낙후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조대 설치하였던 能磨兒廳도 한동안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북벌로 인해 점차 요구되는 새로운 전법을 확립하기 위해 이때에 이르러 能磨兒廳 무신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었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추진된 북벌 준비의 일환으로 다양한 실전적인 무예와 병기의 도입과 함께 인조대 후반 이후 침체해있던 새로운 전술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효종 5년 12월 연소한 武臣을 뽑아 《武經七書》를 강의하게 한 것은 이 시기 兵學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⁶³⁾ 이듬해에는 전문적인 병학 교육을 위해 能磨兒廳의 면모를 일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⁶⁴⁾ 특히 병자호란 시기 청 기병의 일제 돌격에 대응하지 못하였던 절강병법의 보병 중심 方陣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진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 역대 병서에 나타난 여러 진법이 검토되었는데, 예를 들어 《握奇經》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이다. 《握奇經》은 중국 古代 진법인 八陣의 조합과 운용 방법을 설명한 병서로서 후대의 여러 진법은 이 八陣을 기본으로 하여 五行과 八卦의 사상이 추가되면서 완성되는 경우가 많았다.⁶⁵⁾ 이 책이 동양 陣法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종대 들어 비로소 《握奇經》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병자호란에서 절강병법의 진법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절감한 것에 기인한다. 이처럼 효종대를 거치면서 조선의 병학 수준은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된

59) 《仁祖實錄》 권20, 인조 7년 정월 乙丑.

60) 이 시기 조선의 전술 논의에 대해서는 노영구(2010), 〈인조 초~병자호란 시기 조선의 전술 전개〉, 《한국사학보》 41 참조.

61) 《承政院日記》 29책, 인조 8년 1월 28일(戊申).

62) 《仁祖實錄》 권19, 인조 6년 10월 丙申.

63) 《孝宗實錄》 권13, 효종 5년 12월 戊辰.

64) 《孝宗實錄》 권15, 효종 6년 8월 戊午.

65) 李零 主編(1991), 《中國兵書名著今譯》, 軍事譯文出版社, p.344.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세기 중엽 조선 병학의 발전 양상은 효종 9년 安命老가 편찬한 《演機新編》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안명로는 정유재란시 寶城郡守 겸 統營中軍으로 그 해 6월 안골포에서 전사한 安弘國의 손자이자,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곳의 수령을 거친 인물이었다. 따라서 兵法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演機新編》은 《握奇經》을 기본으로 하여 이후의 여러 진법을 圖와 說로서 설명하고 있다. 안명로는 諸葛亮의 八行方陣과 《李衛公問對》에 나타난 李靖의 六花陣은 《握奇經》의 九軍方陣과 더불어 진법의 正宗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의 여러 진법, 예를 들어 獨孤及, 裴緒, 杜佑, 張燁, 戚繼光, 王鳴鶴의 진법은 經文의 本旨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안명로는 조선전기의 진법인 五衛陣法이 諸葛亮과 李靖의 기병과 보병을 함께 운용하는 진법에 바탕을 두고 있고 河圖洛書와도 서로 표리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⁶⁶⁾ 따라서 오위진법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후 새로운 진법 고안의 주요한 근거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⁶⁷⁾

《연기신편》을 통해 효종대 새로운 진법의 개발 과정에서 역대의 다양한 병서가 참고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조선 병학의 수준도 함께 상당히 올라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연기신편》 중권의 구성과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중권은 최초 ‘君道’로부터 마지막 ‘將論’까지 병학의 주요 36개 항목을 두고 각 항목별로 《무경칠서》의 해당 내용을 인용하였다. 다만 내용상 필요할 경우 다른 병서와 필자의 견해를 추가하도록 하였다.⁶⁸⁾ 이러한 체제는 당시 조선의 《무경칠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그 이해의 폭이 넓어져 17세기 초 《신기비결》과 달리 《무경칠서》의 관련 내용을 망라하여 병학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연기신편》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전술체계의 기준이 되었던 절강병법을 《무경칠서》 등 역대 병서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효종대까지 조선 병학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조선의 《무경칠서》 이해가 상당히 깊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이는 이후 새로운 전술 창안과 조선적 병학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매개가 되었다. 실제 현종대 들어 《이위공문대》에서 제시된 六花陣 시범과 조선전기 五行陣의 재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⁶⁹⁾

숙종 초에는 한성의 주요 군영인 훈련도감과 어영청에서 추가로 선발하는 將官 100여명에 대한 병서 교육을 위해 《무경칠서》의 추가 간행이 이루어졌다.⁷⁰⁾ 숙종대의 《

66) 《演機新編》 天, 〈五衛變陣法〉

67) 《演機新編》 天, 〈演機新編凡例〉

68) 《演機新編》 天, 〈演機新編凡例〉

69) 《顯宗實錄》 권12, 현종 7년 3월 己酉.

70) 《備邊司謄錄》 35책, 숙종 5년 12월 12일.

무경칠서》 보급 노력은 숙종 말년인 1717~1718년(숙종 43, 44) 사이에 顯宗實錄字로 간행된 《무경칠서직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⁷¹⁾ 숙종 말년에 간행된 《무경칠서직해》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손무자직해》와 《육도직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울료자직해》와 《당태종이위공문대직해》 등이 알려져 있다. 국가 차원의 《무경칠서》 간행 이외에도 17세기에는 지방관이나 私版의 《무경칠서직해》 간행도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러 《삼략직해》 판본이 남아 있는 것은 17세기 활발히 이루어진 조선의 병학 학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⁷²⁾ 18세기 전반인 영조 12년(1736) 당시 조선에서 간행되는 《무경칠서》는 기본적으로 劉寅의 《무경칠서직해》라고 언급될 정도로 《무경칠서직해》를 중심으로 병서 학습이 이루어졌다.⁷³⁾

영조대 들어 《무경칠서직해》를 중심으로 《무경칠서》의 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짐과 비슷한 시기인 영조 12년 새로운 체재의 《무경칠서》, 즉 別註가 붙은 《무경칠서》로서 청나라에서 도입되었다.⁷⁴⁾ 이 시기 도입된 것은 어떠한 것인지는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조선의 《무경칠서》 이해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올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18세기 전반부터 《新刊增註三略直解》라는 명칭의 《삼략직해》가 출판되기 시작한 점을 들 수 있다.⁷⁵⁾ 이는 영조 12년(1736) 도입된 別註가 붙은 《무경칠서》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경칠서직해》의 각 책들은 전국의 주요 지역에서 계속 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평양의 평안도 관찰사영(箕營)을 들 수 있다. 현재 《무경칠서직해》 각 책의 판본 중 18세기 중반 이후 箕營에서 간행된 것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데 이는 영조대 초반 물력이 풍부한 평안도 관찰사영에서 《武備志》 등의 병서를 간행하도록 한 영조의 조치와도 관련이 있다.⁷⁶⁾

18세기 후반 정조대에는 조선의 병학 연구가 한단계 성숙된 수준에 달하게 된다.⁷⁷⁾ 이전까지 조선의 병서 간행과 병학 연구는 중국 병서를 그대로 간행하거나 조선에 필요

71) 현종실록자와 그 주요 印本에 대해서는 김두중(1974), 앞의 책, pp.298~300. 참조.

72) 남권희(2002), 〈三略의 간행과 판본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 pp.8~10.

73) 《承政院日記》 824책, 영조 12년 4월 19일(癸丑).

74) 《備邊司謄錄》 99책, 영조 12년 5월 4일.

75) 남권희(2002), 앞의 논문, p.27.

76) 《備邊司謄錄》 104책, 영조 14년 10월 24일. 평안도 감영에서 간행된 《무경칠서직해》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丁未年 4월에 간행된(丁未四月 日箕營開刊) 《오자직해》·《사마법직해》·《울료자직해》·《손무자직해》·《당태종이위공문대》 등이 소장되어 있다. 정미년이 1727년(영조 3)인지 아니면 1787년(정조 11)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영조 1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는 평안도 감영에서의 병서 간행의 흐름상 1787년의 가능성이 높다.

77) 이하 정조대 병서 간행의 흐름에 대해서는 노영구(2000), 〈정조대 병서 간행의 배경과 추이〉, 《장서각》 3 참조.

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懸吐, 增註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조선의 군영 체제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군영별로 차이가 있는 전술 체계도 종합하여 새로운 전술 체계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정조 9년 편찬된 《兵學通》은 군영별로 차이가 있는 전술 체계를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에서 더 나아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조응할 수 있는 조선에 적합한 전술 및 병학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정조의 이러한 인식은 국왕 즉위 후 첫 번째 綸音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는 당시 《육도》, 《삼략》, 《손자》, 《오자》와 같은 병서는 높은 선반 위에 묶어 두어 場操, 水操와 같은 군사 훈련은 어린이의 장난처럼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⁷⁸⁾ 즉 새로운 병학 체계의 구축을 위해 고전 병법서인 《무경칠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武經七書》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孫武子》와 《六韜》의 경우 그 문체가 雄健하고 이치가 정밀하여 諸子 중에서 높은 위치를 점한다고 하였다. 심지어 《三略》은 用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⁷⁹⁾

정조 19년까지 기본적인 병서의 간행이 일단락되자 이후 정조는 새로운 체제의 《무경칠서》 편찬에 착수하였다. 정조 20년 12월 정조는 지훈련원사 李敬懋에게 《무경칠서》 가운데 아직도 읽을 만한 본이 없고 훈련원에 板本마저 보관되어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활자로 간행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武經七書》의 주석이 소략하므로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하였다.⁸⁰⁾ 정조는 《무경칠서》의 《손자》, 《사마법》과 같은 책은 古文으로서 그 문체가 중국 唐宋八大家 보다 낫다고 평가하여 《무경칠서》를 단순히 군사에 대한 책이 아닌 주요 고전의 하나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⁸¹⁾ 그런데 《무경칠서》를 편찬함에 있어서 기존의 《무경칠서(직해)》 판본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편찬에 대한 정조의 다음의 언급은 이를 잘 보여준다.

명하기를 ‘《武經七書》를 교정할 때 訓詁의 大旨는 河守法의 輯註(=《武經七書音注》)를 채택하였으나, 《무경칠서》에는 朱堦이 撰輯한 《武經七書彙解》가 있으니 지금 통용되는 바로 鄉本이다. 또한 劉寅의 註(=《무경칠서직해》)가 있고 또한 丁洪章이 편찬한 《武經七書全解》가 있다. 주용과 정홍

78) 《弘齋全書》 권26, 綸音1 〈初元朝參日綸音〉

79) 《弘齋全書》 권164, 日得錄 〈文學〉

80) 《正祖實錄》 권45, 정조 20년 12월 甲申.

81) 병서를 고문으로 이해한 것은 조선후기 병서 이해의 주요한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홍백(2014), 〈병서를 읽는 두 가지 방법-조선 중후기 병서 비평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54에 자세하다.

장의 說을 小註로 편입하도록 하라. 《무경칠서》의 차례는 孫武子, 吳子, 司馬法, 三略, 六韜, 尉繚子, 李衛公 순으로 할 것이니 이는 명나라 洪武 년간에 정한 것을 따른 것이다⁸²⁾

이 명령은 정조 21년 초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무경칠서》를 교정할 때 명대 말기 하수법이 편찬한 《武經七書音注》을 바탕으로 《무경칠서》의 본문에 대한 기본 주석을 달았고,⁸³⁾ 아울러 당시 조선에 도입되어 통용되던 《武經七書》의 주석본인 《武經七書彙解》, 《武經七書全解》로서 작은 주석을 달아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였다.⁸⁴⁾ 즉 이 시기 정조는 《武經七書》를 새로이 편찬하면서 당시 조선에 알려져 있던 여러 다양한 주석을 고루 참조하여 완성도 높은 병학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무경칠서》 각 책의 그 편찬 순서도 홍무 년간에 劉寅이 《무경칠서직해》를 편찬하면서 정한 孫武子, 吳子, 司馬法, 三略, 六韜, 尉繚子, 李衛公의 순서를 따르도록 하여 하나의 새로운 定本을 만들고자 하였다. 당시까지 《무경칠서》 각 책의 순서에 대해서는 《武備志》, 《武經七書彙解》, 《武經七書全解》 등이 달랐고 《무경칠서직해》는 조선후기에는 각 책별로 만들어 차례가 정해지지 않았다.⁸⁵⁾ 이러한 상황에서 정조 21년의 《무경칠서》 편찬은 여러 판본별로 다른 《武經七書》의 체재를 통일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주요한 주석서를 바탕으로 주석을 정비하여 완전한 새로운 《무경칠서》 편찬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무경칠서직해》 각 책별로 간행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朝鮮本 《무경칠서》의 定本 편찬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武經七書》 편찬 작업을 통해서 기존의 병학 및 전술 체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년 후 정조의 죽음과 세도정치로 대표되는 정치 체제의 변화 속에서 정조 후반기 활발히 시도되던 새로운 체제의 《무경칠서》 편찬 작업은 중도에 중지되었다.

5. 맺음말 : 《武經七書直解》 완역의 의미와 향후 과제

19세기 이후 새로운 체제의 《무경칠서》 편찬은 완성되는 못하였으나 그 성과는 이후 부분적으로 계승되었다. 예를 들어 1805년 간행된 《新刊增註三略直解》의 경우 당

82) 《弘齋全書》 권164, 日得錄 〈文學〉 “命武經七書校正時 訓詁大旨 採用河守法輯註 而有朱壩撰輯之彙解 卽鄉本通用者 亦有劉寅註 丁洪章所撰全解 朱丁之說 以小註編入 七書次第 則孫武子, 吳子, 司馬法, 三略, 六韜, 尉繚子, 李衛公 用洪武年間所定”

83) 《武經七書音注》에 대해서는 謝詳皓(1998), 앞의 책 pp.279~280.에 자세하다.

84) 《武經七書彙解》는 1700년 주용이 《무경칠서》에 대한 기존의 여러 주석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7권의 대형 병서이다.

85) 《承政院日記》 1772책, 정조 21년 1월 22일(癸亥).

시 통용되던 전주판 등의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주석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각 장의 아래에 언해를 추가하고 註와 大文에 현토하고 小註와 頭註를 다는 등 조선본 《삼략직해》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15세기 《무경칠서집주》 이후 처음으로 《손자》에 주석을 달고 필자의 견해를 수록한 趙義純의 《孫子髓》가 1869년 간행되었다.⁸⁶⁾

이상에서 보았듯이 《무경칠서》에 대한 조선의 관심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말부터는 조선본 《무경칠서》 정본의 편찬을 시도할 수준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무경칠서》를 유학 고전에 버금가는 고문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체제의 《무경칠서》 편찬과 간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선의 병학은 일시적 정체의 과정을 맞게 된다.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과정에서 조선의 군사력이 이를 저지하지 못하자, 이후 ‘조선은 역사적으로 군사적 전통이 부재하였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이는 매우 오랫동안 우리의 인식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러나 조선시대 《무경칠서》 편찬과 이해에 대한 본 발표를 통해 이는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최근 전통문화연구회에서 《무경칠서직해》의 역주본을 출판한 것은 단순히 《무경칠서》 번역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군사적 전통을 재발견하고 아울러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기본 병학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한 역주가 아닌 조선후기 간행된 여러 판본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정본 번역을 시도한 것은 19세기 초 중지된 《무경칠서》 정본화의 재가동을 위한 일보를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86) 조혁상(2008), 〈19세기 병서 《孫子髓》 연구〉, 《군사사 연구총서》 5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시맨틱 웹 시대의 十三經注疏 데이터베이스 구현 전략

2014. 11. 25

김 현, 윤종웅, 안성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문화연구회

十三經注疏 역주 사업

동양고전 정보화의 개선 과제

十三經注疏 지식 DB의 설계

十三經注疏 지식 DB의 활용

동양고전 정보화의 지향 모델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전통문화연구회의 十三經注疏 譯註 事業

東洋古典譯註事業(十三經注疏 譯註 特別계획)

- 사업 기간 : 2011~2020년
- 사업 목표 : 12종 71책 (국고보조 번역서 <鸛雅注疏> 1종 2책 제외)
- 소요 예산 : 56억 9백만 원

1차
(2011~2015년)

사업 개요 : 四書五經을 중점적으로 역주
사업 목표 : 8종 30책
대상 서목 : <論語注疏>(2책), <孟子注疏>(3책), <毛詩正義>(5책), <尙書正義>(5책), <周易正義>(2책), <禮記正義(大學, 中庸 鄴도 간행)>(7책), <春秋左傳正義>(5책), <孝經注疏>(1책)

2차
(2016~2020년)

사업 개요 : 十三經 역주 완료
역주 목표 : 7종 41책
대상 서목 : <禮記正義>(6책), <春秋左傳正義>(7책), <毛詩正義>(5책), <周禮注疏>(9책), <儀禮注疏>(8책), <春秋公羊傳>(4책), <春秋穀梁傳>(2책)

十三經注疏 역주 사업

동양고전 정보화의 개선 과제

十三經注疏 지식 DB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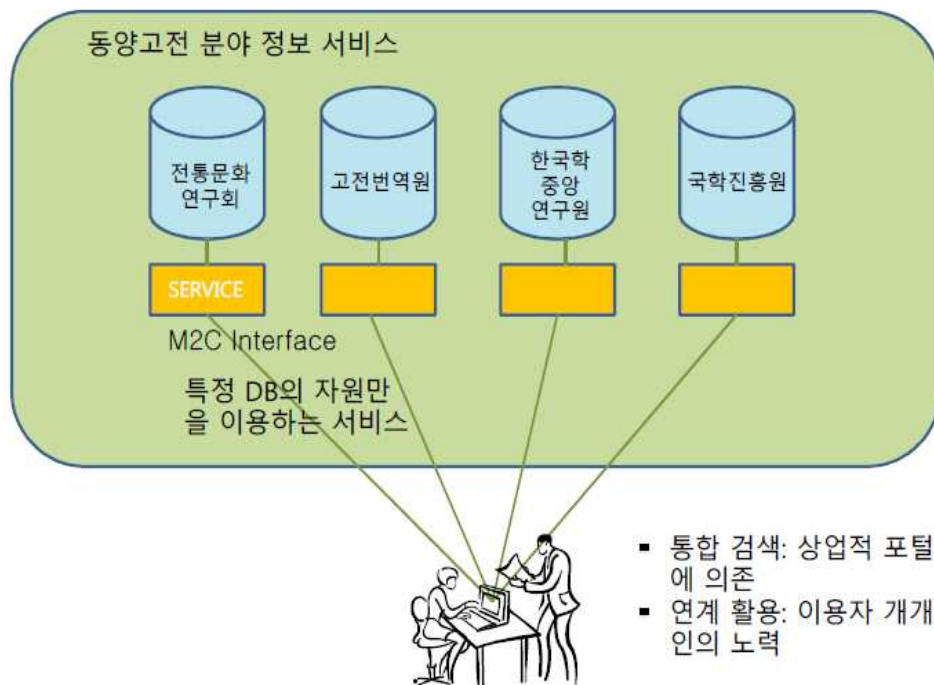
十三經注疏 지식 DB의 활용

동양고전 정보화의 지향 모델

동양고전 자료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 ❖ 온라인 서비스가 책 간행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형태로 진행
- ❖ 책자 형태로 간행된 자료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입력 ... 자료에 대한 접근성, 보급의 용이성을 향상 시켰으나,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크게 증대시키지 못함.
- ❖ 十三經을 비롯한 경전원문이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나 이를 이용자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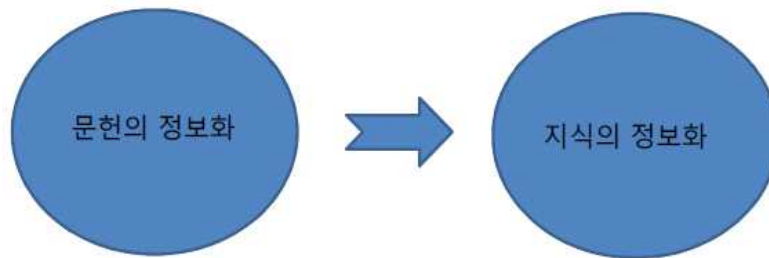
동양고전 자료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동양고전 자료 정보화 사업의 개선 과제

- ❖ 다양한 디지털화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접근 경로를 마련하고 자료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발굴할 수 있는 구조로 디지털화
- ❖ 경전 본문 중의 주요 개념 용어와 문맥 요소를 식별하여 다른 경전의 주석 등 유관한 지식 정보로 연계하는 지식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게 함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종래의 동양고전 정보화 (As Is Model)

- ❖ 자료를 '문서'로 취급하여 디지털 화

지식-책의 내용



종이 매체로 간행된 책



Digitalize



전자 매체로 간행된 책

- 지금까지의 동양고전 자료 정보화는 책에 담긴 지식을 정보화하기보다는 종이 매체로 만들어진 문헌을 정보화 하는 것으로 이해
- 대상 문헌의 내용과 편찬 체계를 그대로 디지털 저작물 형태로 복원함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동양고전 정보화의 새 방향 (To Be Model)

❖ 자료에 담긴 지식(Knowledge Data)을 디지털화



지식의 디지털화

- 종이 책이 채용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속의 담긴 지식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디지털화가 필요함
- 13경이라는 고전 자체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 데이터에 특성에 적합한 디지털화 방법을 강구해야 함.



하이퍼링크

멀티미디어

다양한 매소

시각화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예시] 족보 자료의 정보화(1)

❖ 문헌정보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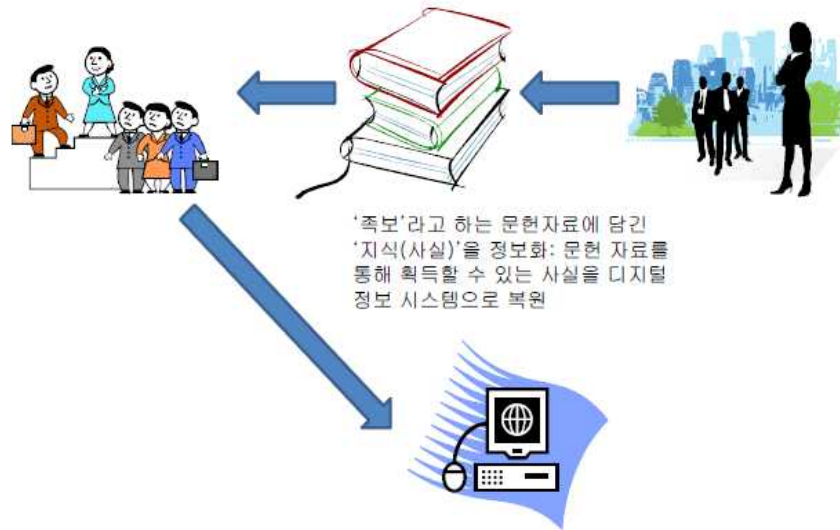
'족보'라고 하는 문헌자료의 내용을 정보화: 대상 문헌의 내용과 편찬 체계를 디지털 저작물 형태로 복원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예시] 족보 자료의 정보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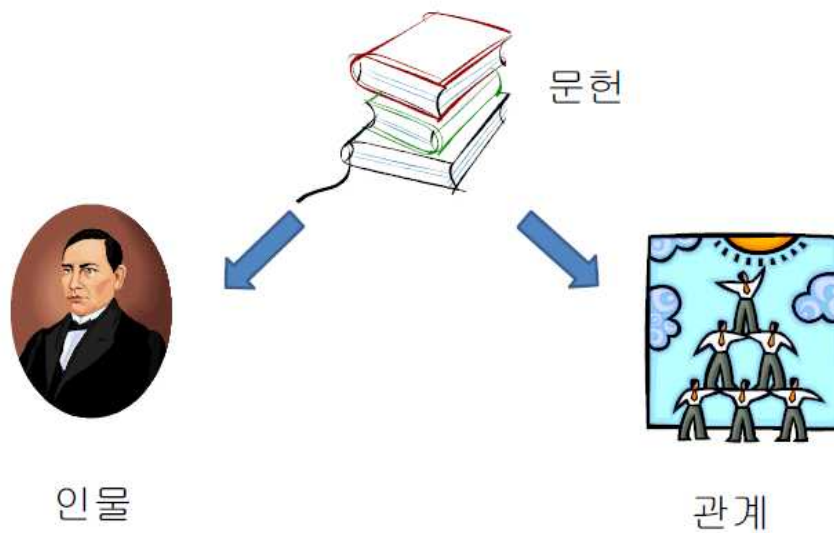
❖ 지식정보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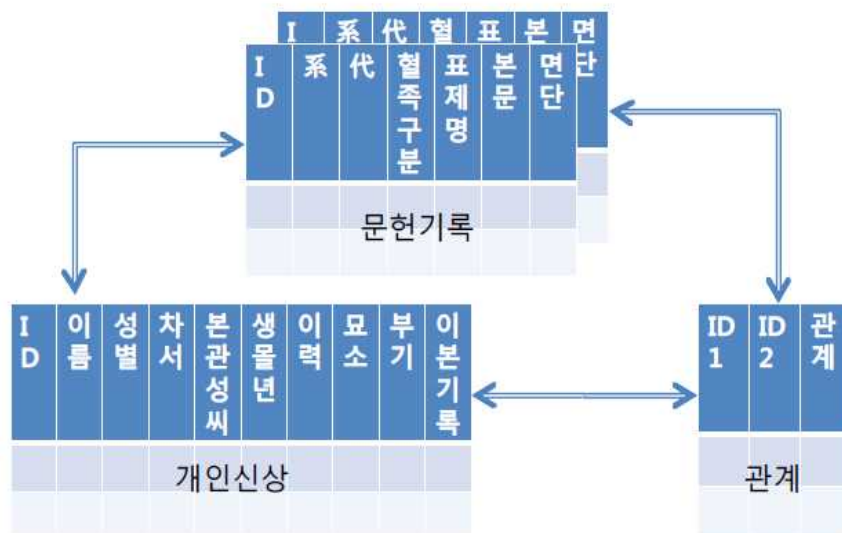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예시] 족보 자료의 정보화(3)

❖ 족보 자료에 담긴 지식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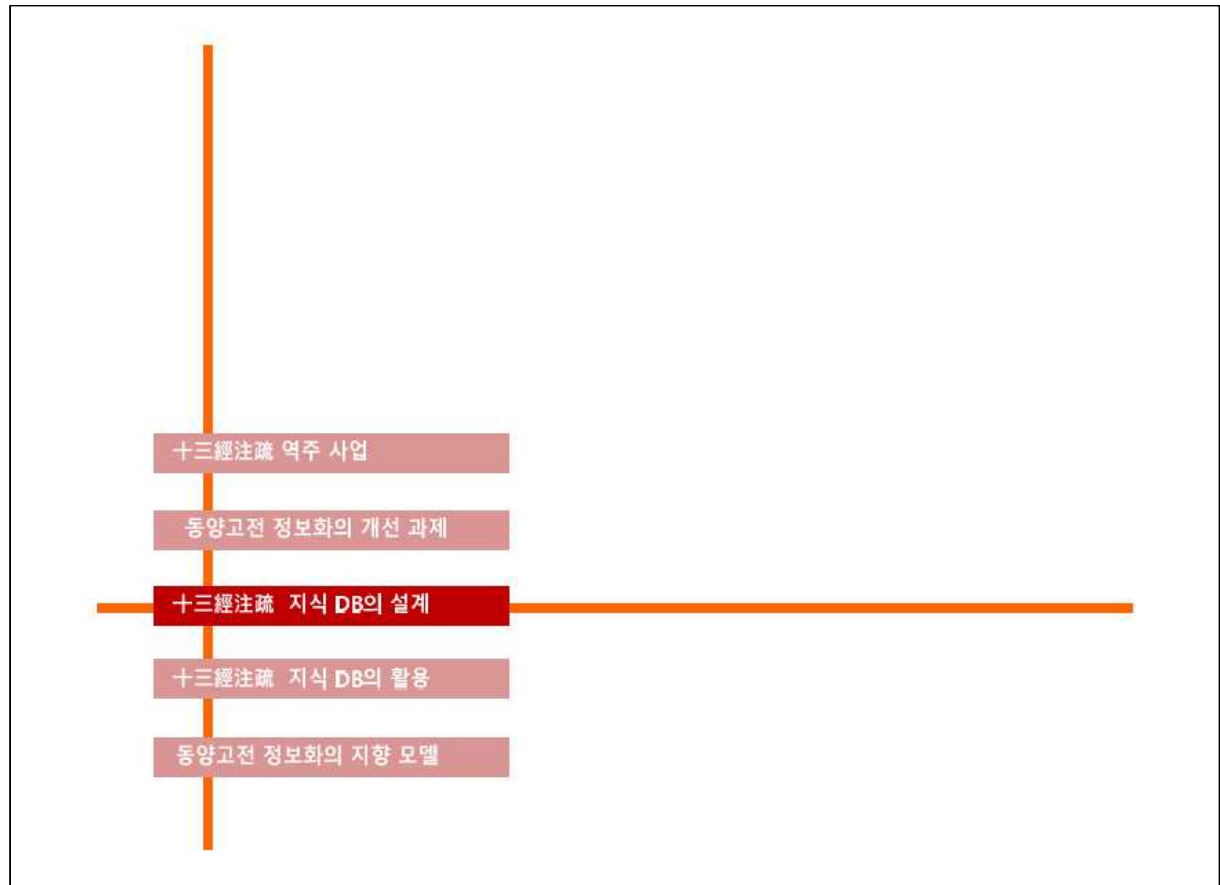


[예시] 족보 자료의 정보화(4)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비교

	As Is Model	To Be Model
대상	책을 정보화	책속에 담긴 지식의 정보화
정보화 방법	서문, 목차, 본문 등의 책의 구조를 재현 '아날로그 → 디지털' 매체의 전환에 주력	지식 Unit을 발굴하여 Node화 활용 목적에 따라 정보를 재조직할 수 있게 함(Reuse)
서비스 방법	디지털 도서 내용 검색 + 순차적 글 읽기	특정 주제의 지식정보망 본문 내용 속에서 문맥 요소를 드러내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지식의 확대를 도모
활용성	Web of Document 완결된 결과물 유관한 지식의 탐색은 독자의 노력으로.....	Web of Data 융복합적 재활용이 가능 유관한 지식 세계로 안내하는 지식정보망의 기능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論語注疏의 體制

南宋 宋 光宗 紹熙 연간에 국가 사업으로 권위 있는 주석을 선정하여 간행할 때 삼국시대 魏나라 何晏의 論語集解와 論語集解를 상세히 敷衍하고 考證한 宋나라의 邢昺의 論語正義가 선정되어 이 두 책을 합본하여 論語注疏解經을 간행하였으며 보통 論語注疏로 부른다.

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아

【注】 馬曰 子者是 男子之通稱이니 謂孔子也라 王曰 時者는 學者以時誦習之니 誦習以時인 學無間斷이라 所以爲說也이라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注】 包曰 同門曰朋이라

人不知而不愠이면 不亦君子乎아

【注】 愠은 怒也니 凡人有所不知라도 君子不怒라

【疏】 “子曰學而”至“君子乎” ○正義曰：此章勸人學爲君子也。子者，古人稱師曰子。子，男子之通稱，此言子者，謂孔子也。曰者，說文云“詞也，從口乙聲，亦象口氣出也。”然則曰者，發語詞也。以此下是孔子之語，故以子曰冠之。或言孔子曰者，以記非一人，各以意載，無義例也。白虎通云“學者，覺也，覺悟所未知也。”孔子曰“學者而能以時誦習其經業，使無廢落，不亦說乎。學業稍成，能招朋友，有同門之朋從遠方而來，與己講習，不亦樂乎。既有成德，凡人不知而不怒之，不亦君子乎。”言誠君子也。君子之行非一，此其一行耳，故云亦也。

【疏】 ○注“馬曰子者”至“說也” ○正義曰：云“子者，男子之通稱”者，經傳凡敎者相謂皆言吾子，或直言子，稱師亦曰子。是子者，男子有德之通稱也。云“謂孔子”者，嫌爲他師，故辨之。公羊傳曰“子沈子曰”何休云“沈子稱子冠氏上者，著其爲師也。不但言子曰者，辟孔子也。其不冠子者，他師也。”然則書傳直言子曰者，皆指孔子。

경전 원문

馬融의 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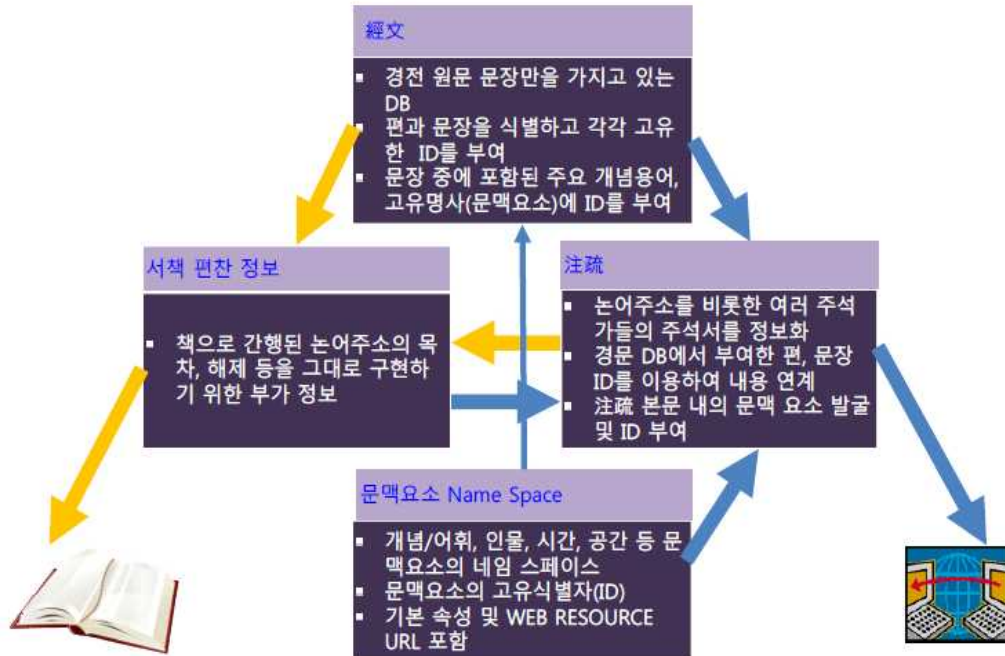
王肅의 주석

包咸의 주석

何晏의 注

邢昺의 疏

十三經注疏 DB 기본 구조



經文 DB Data 구조

- 전통문화연구회의 기준에 의해 정한 13경 경문의 선본(善本) TEXT (한문원문 및 번역문)
- 경문의 각 편을 중심으로 개별 문장에 고유한 ID를 부여하여 외부에서 이 ID를 통해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
- 경문 중에 출현하는 주요 개념어 및 인명/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문맥요소로 식별하고 문맥요소 Name Space에서 정한 ID를 기입

經	篇	文章	語彙	
논어	學而 第一	000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아	ID	子
		0002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아	ID	曰
		0003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ID	學
		●●●	ID	習
		0010 有子曰		
		0011 其爲人也 孝弟요 而好犯上者 鮮矣니		
		●●●	ID	曾子
		0050 子曰 巧言令色은 鮮矣仁이니라	ID	子夏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注疏 DB Data 구조

- 十三經注疏의 注/疏 부분 텍스트 (한문 원문 및 국역문, 역주)
- 十三經注疏 서책에 담긴 지식을 정보화
- 경문, 주, 소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구조이며 이 섹션을 기본 단위로 구성
- 경문은 경문 DB의 텍스트를 재이용하되, 이본을 쓸 경우 이를 표시하여 부가
- 각 주석에 주석가와 문맥요소를 식별하여 정해진 ID를 부여함

경문 ID로 경문
연계

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注】馬曰 子者 男子之通稱이니 謂孔子也라 王曰 時者는 學者以時誦習之니 誦習以時면 學無廢業이라 所以爲說懼이라

섹션 ID 부여

【注】包曰 同門曰朋이라

주석가 식별 및
ID 기입

【疏】“子曰學而”至“君子乎”○正義曰：此章勸人學爲君子也。子者，古人稱師曰子。子，男子之通稱，此言子者，謂孔子也。曰者，說文云“詞也，從口乙聲，亦象口氣出也。”然則曰者，發語詞也。以此下是孔子之語，故以子曰冠之。或言孔子曰者，以記非一人，各以意載，無義例也。白虎通云“學者，覺也，覺悟所未知也。”孔子曰“學者而能以時誦習其經業，使無廢落，不亦說乎。學業精成，能招朋友，有同門之朋從遠方而來，與已講習，不亦樂乎。既有成德，凡人不知而不怒之，不亦君子乎。”言誠君子也。君子之行非一，此其一行耳，故云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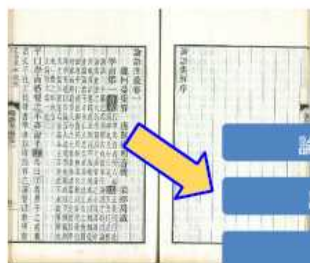
문맥요소 식별
및 ID 기입

섹션
經
注
注
疏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서책 편찬 정보 DB Data 구조

- 책으로 간행된 十三經注疏를 재현하는 데이터
- 경문 및 주/소 본문 이외에 서책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를 수록
- 경문 및 주/소 텍스트는 이중으로 관리하지 않고 경문 DB 및 주소 DB의 TEXT를 이용
- 책의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재현될 수 있도록 면(PAGE) 정보 관리
- 원문 이미지 DATA의 연계 서비스는 이 DB의 정보를 매개로 이루어지도록 함



論語注疏解經序解

論語注疏校勘記序

引據各本目錄

卷第一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經/注疏 TEXT

서책 편찬 정보

원문이미지

용어집

## 다양한 문맥 요소의 정보화

- 경문 및 주, 소 텍스트에 포함된 주요 개념어와 인명, 지명, 서명 등의 문맥요소를 발굴하고, 미리 정의된(동양고전정보 Name Space) 식별자를 기입.



7. <인명 ID="..." TYPE="1B">子夏</인명>曰 賢賢易色하며

【注】孔曰 <인명 ID="..." TYPE="1B">子夏</인명>는 弟子 <인명 ID="..." TYPE="QA">卜商</인명>也라. 言以好色之心好賢則善이라.

事父母호되 能竭其力하며 事君호되 能致其身하며

【注】孔曰 盡忠節하고 不愛其身이라

與朋友호되 言而有信이면 雖曰未學이라도 吾必謂之學矣라호리라

【疏】<인명 ID="..." TYPE="1B">子夏</인명> 曰'至'學矣' ○正義曰 : 此章論生知美行之事. '賢賢易色'者, 上賢, 讀好尚之也. 下賢, 讀有德之人. 易, 改也. 色, 女人也. 女有姿色, 男子悅之, 故經傳之文, 通讀女人爲色. 人多好色不好賢者, 能改易好色之心, 以好賢, 則善矣. 故曰'賢賢易色'也. '事父母, 能竭其力'者, 讀小事也. 言爲子事父, 雖未能不匱, 但竭盡其力, 服其勤勞也. '事君, 能致其身'者, 言爲臣事君, 雖未能將順其美, 匡救其惡, 但致盡忠節不愛其身, 若重丘崗也. '與朋友交, 言而有信'者, 讀與朋友結交. 雖不能切磋琢磨, 但言約而信有信也.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者, 言人生知行此四事, 雖曰未嘗從師伏膺學問, 然此爲人行之美矣. 雖學亦不是過, 故'吾必謂之學矣'.

十三經注疏 역주 사업

동양고전 정보화의 개선 과제

十三經注疏 지식 DB의 설계

十三經注疏 지식 DB의 활용

동양고전 정보화의 지향 모델

## 다양한 주석의 종합 서비스

- 經文 DB 상의 ID를 매개로 하여 관련된 주석을 모아서 열람하는 서비스
- 하나의 經文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다양한 주석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짐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            |                                                                                                                                                                                                                                                                                                                                                                                                                                                                                                                                              |
|------------|----------------------------------------------------------------------------------------------------------------------------------------------------------------------------------------------------------------------------------------------------------------------------------------------------------------------------------------------------------------------------------------------------------------------------------------------------------------------------------------------------------------------------------------------|
| 論語注疏       | 馬曰 子者是 男子之通稱이니 謂孔子也라 子曰 時習는 學者以時講習之니 講習以時면 學無廢業이라 所以爲說惟이라<br>[疏] 子者, 古人稱師曰子, 子, 男子之通稱, 此言子者, 謂孔子也. 曰者, 說文云 “詞也, 從口乙聲, 亦象口氣出也.” 然則曰者, 發語詞也. 以此下是孔子之語, 故以子曰冠之. 或言孔子曰者, 以記非一人, 各以意載, 無義例也. 白虎通云 “學者, 覺也, 覺悟所未知也.” 孔子曰 “學者而能以時講習其經業, 使無廢落, 不亦說乎. 學業精成, 能招朋友, 有同門之朋從遠方而來, 與已講習, 不亦樂乎. 既有成德, 凡人不知而不怒之, 不亦君子乎.” 言誠君子也. 君子之行非一, 此其一行耳, 故云亦也.                                                                                                                                                                                                         |
| 論語集注       | 學之爲言은 效也라 人性皆善이나 而覺有先後하니 後覺者必效先覺之所爲라야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라 習은 鳥數飛也니 學之不已를 如鳥數飛也라 說은 喜意也니 既學而又時時習之면 則所學者熟而中心喜悅하여 其進이 自不能已矣리라 程子曰 習은 重習也니 時復思繹하여 浹洽於中이면 則說也니라 又曰 學者는 將以行之也니 時習之면 則所學者在我라 故로 悅이니라 謝氏曰 時習者는 無時而不習이니 坐如尸는 坐時習也요 立如齊는 立時習也니라                                                                                                                                                                                                                                                                                                                |
| 論語古今註(丁若鏞) | 邢曰 “稱師曰子.” [《公羊傳》曰: “子, 何休云: ‘稱子冠氏上者, 著其爲師也.’”] 言孔子曰者, 以其聖德著聞, 師範來使, 不須言其氏, 人盡知之也. [《說文》: “孔門稱夫子曰: ‘子者, 內辭也. 如《春秋》稱魯君曰公.’”] ○補曰 “學, 受教也. 習, 肄業也. 時習, 以時習之也. 說, 心快也. [《皇云》: ‘懷抱欣暢也.’] 說卦上開, 大卦亦然. 悅, 快樂相近也.” [《說卦·彖傳》云: “說以先民.”] ○補曰 “朋, 同進者也. [《坤卦》注] 自遠方來, 則其人必素懷, 致之者, 亦賢者也. 樂, 深喜也.” [朱子曰: “悅是感於外面發於中, 樂是充於中而發於外.”] 人不知, 猶人不知我之學說也. 慍, 心有所蘊結也. [《時·檀弓》云: “我心蘊結兮.”] 《易》曰: “不見是而無悶.” [程子曰] ○補曰 “君子, 有德之稱. 鄭玄《玉藻注》曰: ‘君子, 大夫, 士.’” [又云: “君子, 士已上.”] 《少儀》注曰: “君子, 卿大夫.” [孟子云: “非野人, 莫養君子.”] 君子云者, 大君之子也. 爵王者之稱天子也. 古惟有德者得在位, 故後世雖無位, 凡有德者稱君子. |
| 思辨錄(朴世堂)   | 人從師讀書而講究, 求知行己處物之方, 是謂之學, 既得其方, 又須熟習, 理明功到, 其心說喜, 若荒墮者, 安得有此乎. ○學雖可訓爲效, 但只言效則恐於傳授講習之義或有未備, 上蔡之說雖巧, 殊非孔子本旨, 坐如尸立如齊, 此只莊敬自修, 不可取作學習之一事, 朱子讀伊川之說, 專在思索, 上蔡之說, 專於力行, 似皆偏了, 今觀伊川後說, 固不專思索, 而若如上蔡, 其失恐不但在偏而已, 蓋論理釋義, 只當深明立言本意, 不當泛濫旁出如此也.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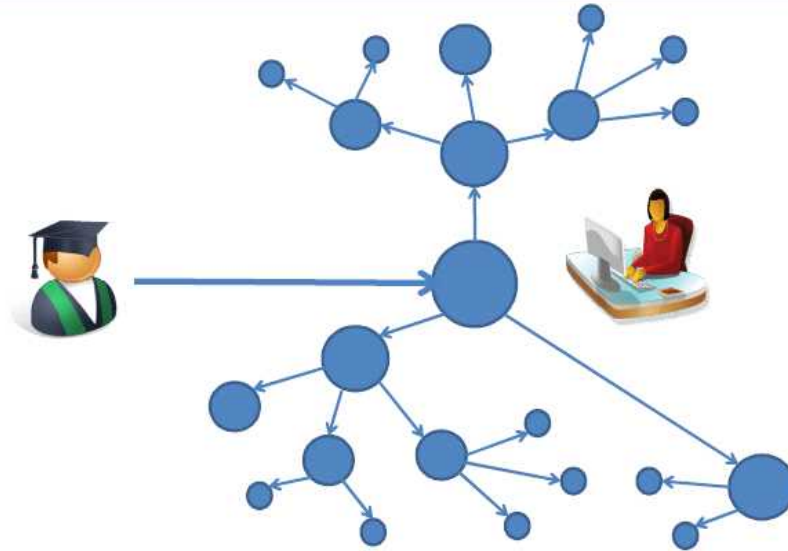
## 다양한 주석의 종합 서비스

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       |    |      |    |                                     |
|-------|----|------|----|-------------------------------------|
| 論語注疏  | 子  | 0000 | 馬融 | 子者是 男子之通稱이니 謂孔子也라                   |
|       | 曰  | 0001 | 邢昺 | 子者, 古人稱師曰子, 子, 男子之通稱, 此言子者, 謂孔子也.   |
|       | 學  | 0002 | 邢昺 | 曰者, 說文云 “詞也, 從口乙聲, 亦象口氣出也.”         |
| 論語集注  | 學  | 0003 | 邢昺 | 白虎通云 “學者, 覺也, 覺悟所未知也.”              |
|       | 習  | 0004 | 朱子 | 學之爲言 效也.                            |
|       | 說  | 0005 | 茶山 | 學, 受教也.                             |
| 論語古今註 | 學  | 0006 | 朱子 | 習 鳥數飛也 學之不已 如鳥數飛也.                  |
|       | 習  | 0007 | 茶山 | 習, 肄業也.                             |
|       | 說  | 0008 | 朱子 | 說 喜意也 既學而又時時習之 則所學者熟而中心喜悅 其進 自不能已矣. |
|       | 朋  | 0009 | 茶山 | 說, 心快也.                             |
|       | 君子 | 0010 | 茶山 | 朋, 同進者也.                            |
|       |    |      | 茶山 | 君子, 有德之稱. 鄭玄《玉藻注》曰: “君子, 大夫, 士.”    |

## 문맥요소의 활용

- 문맥요소는 유관한 다른 지식으로 가는 길을 담고 있는 소통의 교점(交點, Node)
- 식별자를 매개로 해당 용어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외부 지식 자원(용어사전, 전문사전 등) 연계



## 문맥요소의 활용-개념/어휘

- 다양한 경학 텍스트를 DB화 할 때 전통문화연구회의 十三經注疏 DB 經文 ID 및 문맥요소 ID를 사용함으로써 유관한 주석에 대한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朴世堂



思辨錄



十三經注疏 DB



朱子

敬者主一無適之謂니 敬事而信者 敬其事而信於民也라

茶山

補曰: "敬事, 謂慮其始終, 度其流弊也. 然後行之, 無所沮撓, 則民信之矣."

栗谷

主 | 古時사덕 천승 나라를 다스리되 일을 경하고 신하여 용을 절하고 일을 익히며 민을 스호되 시로써 훈디니라

○子曰道千乘之國, 可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敬訓以主一無適, 此但敬之一事, 恐未盡其義, 敬只是謹, 戰戰兢兢, 臨深履薄, 卽此爲敬, 戰戰則自無他適, 主但主一無適之義, 豈傷爲敬.

○ 주자가 경(敬)의 뜻을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 해석한 것은 단지 공경한다는 한 가지 뿐인 것이니, 생각컨대, 그 뜻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경이란 것은 삼가는 것으로서 조심하고 조심하여 마치 깊은 못에 임(臨)하거나 실열을 밟는 것같이 하는 것인데, 조심하고 조심하면 자연히 다른 길로 갈 수 없게 된다. 만일, 단지 한 가지만 주로 하고 조심하려는 뜻이 없다면 어찌 경(敬)이 될 수 있겠는가.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 문맥요소의 활용 - 인물 관계망 연계

- 인물 요소의 식별자 공유를 통해 유용한 외부 DB와의 연계를 용이하게 수행,
- [Ex.] CBDB(Chinese Bibliographical Database)의 인물 식별자를 사용하여 특정 인물의 혈연 관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서비스 가능

<문단><국가>魏</국가><인명>何晏</인명><주요><국가>宋</국가><인명>謝安</인명><지명>疏朗</인명>...<인명>謝安</인명><지명>濟陰</지명>人이라 <연호>太平興國</연호>中에 擢九及第하야 官至<관직>禮部尚書</관직>하니라 事蹟具<서명>宋史</서명>本傳하니라 是書는 蓋<연호>咸平二年</연호>에 詔<인명>晏</인명>改定舊疏하야 頒列學官이라 至今承用이나 而傳刻頗謬하니라</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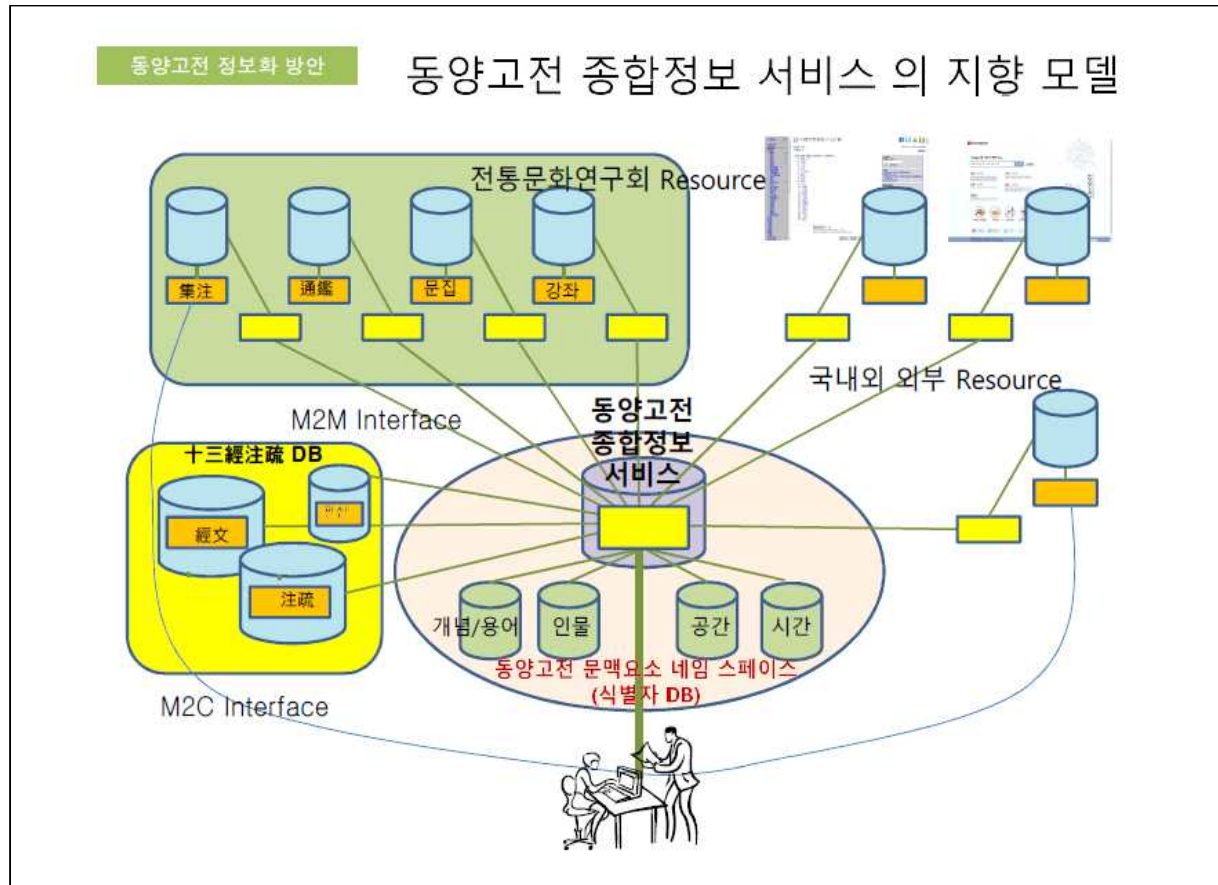
十三經注疏 역주 사업

동양고전 정보화의 개선 과제

十三經注疏 지식 DB의 설계

十三經注疏 지식 DB의 활용

동양고전 정보화의 지향 모델



동양고전 정보화 방안

### 시맨틱 웹 시대의 동양고전 정보

- 시맨틱 웹이란 웹 문서 중에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의미 정보를 기술하는 메타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자동화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
- 현재의 웹에서는 사람만이 산재한 정보의 의미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시맨틱 웹의 세계에서는 컴퓨터가 그 관계를 추적하여 인간의 지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
- 시맨틱 웹 기술의 도입과 응용은 오늘날의 디지털 지식 유통 환경에서 동양고전 지식이 생명력을 유지하며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
- 그러나 그와 같은 진화된 시스템의 구현은 동양고전 텍스트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과 정리의 노력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 동양고전 정보화를 별도의 사업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며, 번역하고, 가르치는 '동양고전 연구, 교육'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와 흔적이 표준적인 디지털 데이터로 남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



## 漢字 文盲의 社會的 弊害 —미디어를 중심으로—

俞碩在(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1. 들어가며
2. 漢字 없는 教育의 問題點
3. 社會的 意味 不通過 混亂
  - (1) 學生들의 ‘意味 誤解’
  - (2) 既成世代의 ‘讀解 不能’
4. 미디어가 擴散시키는 ‘漢字文盲’
  - (1) 글 쓰는 記者들도 漢字 不通
  - (2) 미디어 用語 混亂의 深化
  - (3) 漢字를 使用해야 할 單語는 한글로만 써
  - (4) 出版・公演・映畫에도 誤謬 많아
  - (5) 미디어가 惡性 新造 漢字語까지 使用・傳播
5. 나오며

### 1. 들어가며

筆者는 올해 초부터 朝鮮日報 문화면에 ‘漢字 文盲 벗어나자’는 新年 特輯 기획 기사를 連載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5회에서 6회 정도, 1~2개월 정도 연재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摘示하는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呼應이 무척 컸다.

“설마 이 정도였느냐”,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매번 기사를 스크랩해 본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매회 스크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1월 중순, 신문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선 이런 말도 나왔다.

“漢字文盲 벗어나자’는 훌륭한 기획이고 내용도 좋다. 요즘 아이들은 용어는 물론 개념조차 모른다. (신문이) 옛날처럼 漢字를 쓰거나 併記했으면 좋겠다. 漢字文盲 시리즈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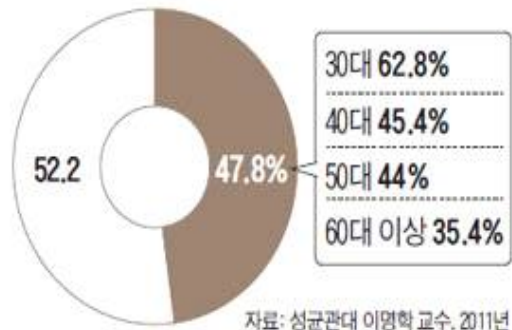
기사를 잘 써서라기보다는 그만큼 문제의 深刻성이 새삼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었겠지만, 이 시리즈는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 기획 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70년 ‘한글 專用化 정책’이 이뤄진 지 2014년으로 44년이 됐다는 데 있었다. 初等學校 입학 연령은 만 6~7세다. 그렇다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漢字를 배우지 않은 세대가 50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20~30대는 물론 40대까지도 漢字와 친숙하지 않은 ‘한글전용세대’인 시대가 됐다는 뜻이다.

李明學 成均館大 教授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成人 남녀의 47.8%가 子女의 漢字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비율은 30代 부모에게선 62.8%에 이르렀다. 분명히 자식의 한자 이름을 관공서에 가서 등록한 사람이 父母일텐데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것이다.

李明學 교수의 2007년 조사에선 대학 신입생의 20.3%가 자기 이름을 漢字로 쓰지 못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이 비율이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切感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2010년 1월 29일자 朝鮮日報 종합2면에 보도된 기사다.

서울시민 중 자녀의 한자 이름을 제대로 못 쓰는 비율 단위: %



“초등학교에 한자 교육과정 넣어야”

교육과정평가원 “학부모 89% 찬성”

교과서의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 내용을 새 교육과정에 일부 반영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기존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통합된 것) 시간에 한자를 가르치도록 각 학교들에 권고하며, 앞으로 사회적 요구를 살펴 한자교육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中略)

보고서는 지난해 6~7월 학부모와 교사 522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83%(학부모의 89.1%, 교사의 77.3%)가 초등학교 한자교육 시행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下略)

初等學校 漢字 教育에 찬성하는 학부모가 89.1%에 이른다는 통계인 것이다. 基礎的 漢字의 뜻을 모르니 의미가 통하지 않는 不通 현상이 일어나고, '한자를 몰라 지식 확장이 봉쇄된다'는 심각한 문제 제기도 있다. 89.1%라는 數値는 '이미 내가 겪어 보니 不便한 점이 많았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며, '漢字文盲'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면 측정 불

가능한 社會的 損失이 생긴다는 각계의 지적과 통하는 것이다. 본 원고는 ‘漢字文盲’ 현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으며, 그 때문에 과연 실제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 2. 漢字 없는 教育의 問題點

2014년 현재, 韓國의 教育課程에서 ‘漢字’는 없다. 중·고교 교육과정에는 ‘漢文’ 과목이 있으나,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가 아니라 古典 한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 한문 과목의 목표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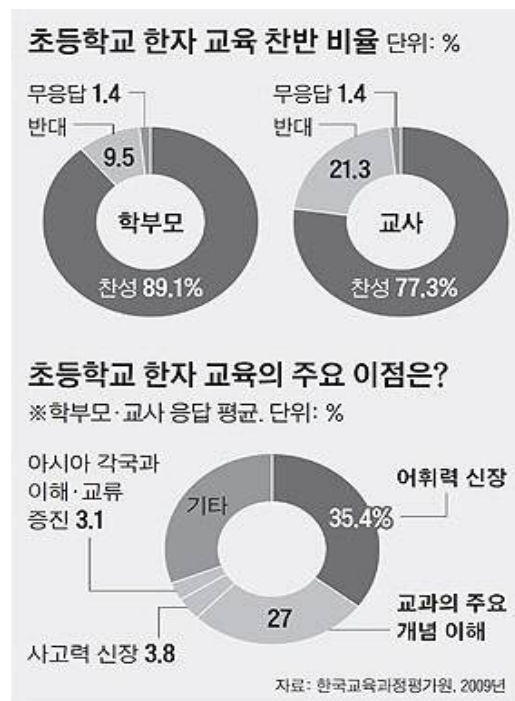
‘한문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先人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고 했다.

‘漢文’을 배우는 목표 자체가 현재 우리말 어휘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자어를 독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옛 한문 문장의 이해’에 있는 것이다. 漢字를 통해 古典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말 교육’과 ‘한자 교육’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 있다는 데 있다. 상당수 대학생이 ‘大韓民國’이나 ‘社會(사회)’ 같은 기초 한자어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全廣鎭 성균관대 중문과 교수는 현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전체의 盲點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二等邊 삼각형이 ‘두[二] 邊의 길이가 같은[等] 삼각형’이고 ‘

조도(照度)란 말이 ‘밝게 비치[照] 정도[度]’라는 뜻을 알고 나서 수학·과학 수업을 들으면 漢字 教育의 連繫性이 훨씬 커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漢文 교과서에는 그런 어휘가 나오지 않는다.”



서울의 한 사립대 史學科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교수가 新入生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던 중 이런 質問을 받았다.

“교수님, ‘봉기’가 도대체 뭘니까?”

‘蜂起’란 ‘벌 蜂’에 ‘일어날 起’자이니 ‘벌떼처럼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난다’는 뜻을 설명해 준 뒤 ‘역사학과에 지원하면서 그런 것도 몰랐느냐고 핀잔을 주려다 보니 주변의 학생들 모두 궁금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歷史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用語의 속뜻을 모르고 무조건 暗記하기만 하는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선비가 화를 입은 일’이라는 뜻의 ‘土禍’,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 단체’란 뜻의 ‘朋黨’, ‘서양 세력이 일으킨 난리’라는 뜻의 ‘洋擾’,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합쳐 가진다’는 뜻의 ‘兼併’, ‘짜워서 크게 이겼다’는 뜻의 ‘大捷’이란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용어를 한글로 풀어쓰지 않고 한자어만 고집해서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공 학자들의 말은 다르다. 예를 들어 ‘戊午土禍’를 ‘무오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丙寅洋擾’를 ‘병인년에 서양 세력이 침공해 와서 전투를 벌인 사건’ 같은 식으로 일일이 다 풀어쓰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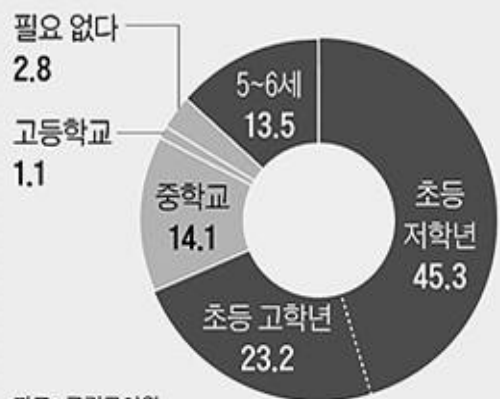
數學의 경우 ‘等號’나 ‘帶分數’란 용어를 처음 배울 때 筆者 세대의 학생들은 모두 영어 단어 외우듯 그냥 暗記했다. 이것은 수학이라는 과목이 실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認識하게 했다. 하지만 이 용어를 교육하면서 한자어의 뜻까지 함께 배우도록 해 等號란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부호’, 帶分數란 ‘정수가 분수를 지나고帶 있는 것’임을 알게 했더라면 훨씬 이해가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과목에서 한자어를 함께 가르쳐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科學 과목에서도 漢字를 알면 ‘兩棲類’를 ‘땅과 물 양쪽에서 모두 서식할 수 있는 무리’, ‘齧齒類’를 ‘이빨[齒]로 물건을 갉는[齧] 무리’로 쉽게 이해하고, ‘樹枝狀 細胞’의 ‘수지상’이 ‘나뭇가지 모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한다.

全國漢字教育推進總聯合會 자료에 따르면, 高等學校 教科書의 索引(찾아보기)에 나오는 용어 중 漢字語의 비율은 한국사 96.5%, 사회 92.7%, 생물 87.2%, 물리 76.2%, 화학 64.5%였다. 中學校 교과서에선 과학 76.2%, 수학 81.1%, 도덕 91.4%였다. 金彦鍾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漢字를 ‘漢文’ 시간에만 가르치게 돼 있는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전 과목 교과서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그저 영어 단어 외우듯 소리 글자로 그 뜻을 익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陳泰夏 인제대 석좌교수는 “대부분 漢字로 된 지식 용어를 한글만으로 表音해 학습하면 그저 들은퐁월로 어렵듯이 알게 된다. 결국 말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 글을 써도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잘 모르는 단어는 辭典을 찾아보면 되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지금 나온 사전을 찾아보면 더 헤맬 때가 많다”는 反論이 나온다. 全廣鎭 교수는 “아무리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국어사전을 찾는 학생들이라 해도, 막상 사전을 읽어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예를 들어 地理 시간에 나오는 ‘해일’이란 말의 뜻이 궁금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해저의 지각 변동이나 해상의 기상 변화에 의하여 갑자기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것. 또는 그런 현상’이라 돼 있다. ‘海濫’의 뜻이 ‘바닷물이 넘친다’는 것이란 기본적인 의미 정보가 없으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數學 교과서에 실린 ‘타원’이란 용어는 사전에 ‘평면 위의 두 정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언제나 일정한 점의 자취.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취로, 이 두 정점을 타원의 초점이라고 하고, 정직선을 준선이라고 한다’고 亂數表처럼 돼 있다. 하지만 ‘橢圓’의 漢字語를 풀어 ‘길쭉한橢 동그라미[圓]’라는 걸 알면 훨씬 쉽게 된다. 결국 한자어의 뜻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너무 먼 길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漢字 教育이 國語 語彙力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대다수 국어 교사가 인정하고 있다. 閔賢植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현 국립국어원장)가 2008년 중·고교 국어 교사 2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漢字 理解力이 語彙力에 기여하는가?’란 질문에 ‘아주 그렇다’라는 응답이 34.8%, ‘그렇다’가 56.4%였다. 91.2%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國立國語院이 5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國民의 言語意識 조사’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바람직한 漢字 教育 實施 時期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 45.3%가 ‘初等學校 低學年’, 23.2%가 ‘初等學校 高學年’이라고 답변했다. ‘중학교’(14.1%) ‘5~6세’(13.5%)가 그 뒤를 이었고, ‘필요 없다’(2.8%) ‘고등학교’(1.1%)는 소수에 그쳤다. 국민의 82%가 ‘한자 교육은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율은 한글 세대인 20대(80.6%)와 30대(83%)도 큰 차이가 없었다.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자 교육 실시 시기’ 단위: %



자료: 국립국어원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 3. 社會的 意味 不通過 混亂

#### (1) 學生들의 ‘意味 誤解’

漢字가 교육 과정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결과는 곧바로 意味 不通 현상으로 이어진다. 2013년 말에 각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학생들의 漢字文盲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事例들이 실제로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 A씨는 최근 한 학생과 대화를 하다 “金九 선생이 暗殺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학생은 “癌에 걸려 돌아가신 것이냐”고 反問했다. ‘暗殺’이란 단어의 漢字를 모르니 ‘몰래 사람을 죽인다’는 뜻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A교수는 “한글 세대의 비극이 이제 갈 데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어 섬뜩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漢字를 몰라 單語의 意味가 不通하는 상황의 一角에 불과하다.

대학교수 B씨는 얼마 전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면서 “되도록 漢字를 많이 쓰라”고 했다. 리포트 표지에 자기 科를 쓰면서 ‘行正學科(行政學科의 오류)’ ‘火學科(化學科의 오류)’라고 써서 제출한 것이다. 자신이 전공하는 科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셈이 된다. 물론 ‘科’를 ‘課’나 ‘果’로 적은 예도 많았다. 다른 대학의 중문과 C교수는 “대학 4학년이 돼도 ‘大韓民國’을 ‘大朝民回’라고 쓰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D교수는 “한 제자가 서류를 떼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직원이 ‘지장도 괜찮다고 하니 ‘지장도 안 가져왔는데요’라고 했다더라”고 했다. ‘指章’이 ‘손가락 도장’이라는 것을 모른 탓에 생긴 일이었다. ‘旅館’을 ‘여자들이 지는 집’으로 알고 “남자가 무슨 여관에 들어가”라고 했다거나, ‘카드 決濟’를 ‘카드 결제’로 쓰는가 하면, ‘調印式’의 ‘조인’을 영어 ‘join’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사례도 있다.

대학원생도 예외는 아니다. E교수는 “助教에게 圖書館에 가서 ‘국어학 개론’을 찾아오라고 시켰더니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開架式 도서관에서 書架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國語學 概論’이라고 쓰인 제목을 읽지 못해서 그랬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대전의 4년제 대학 週刊 영자 신문의 발행 업무를 맡은 ‘主幹 教授’를 ‘Weekly Professor’로 쓴 일도 있다. ‘無難하다’를 ‘문안하다’로 적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런 事例들 때문에 學生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모든 예가 ‘漢字 教育을 제대로 받지 않고서도 충분히 大學에 進學할 수 있는 現實’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中高等學校 教育 현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韓國史 시간에 ‘安重

根 義士’에 대해 배우면서 義士를 醫師로 알고 “그분은 어느 과목을 진료하셨느냐”고 묻고, ‘야스쿠니 神社’의 神社를 ‘紳士 淑女’의 紳士로 잘못 알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숙녀한테는 가지 않았느냐”고 묻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주부 F씨는 최근 인기 남녀 가수의 熱愛說이 언론에 보도되자 중학생 딸에게 “어떻게 그 동안 감쪽같이 이럴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딸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들 그러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하고 반문했다. 알고 보니 ‘연예인(演藝人)’을 ‘연애인(戀愛人)’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더 심한 예도 있다.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 정도로 筆者도 놀랐지만, 분명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최근 한 아이돌 가수의 父親과 祖父母가 한꺼번에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조부모’란 단어가 3위까지 올랐다.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 “언니들, 조부모가 무슨 뜻이야?” 그러자 한 네티즌이 답변을 했다. “응, ‘조’ 자가 ‘새 조’ 자잖아. ‘새(new) 부모님’이란 뜻인가 봐.” ‘조부모’라는 한자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뜻한다는 사실을 젊은 네티즌 중 상당수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교대 입시에서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밥 열 숟가락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쉽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대다수 응시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 ‘피차일반과 비슷한 뜻’이라고 썼다고 한다.

## (2) 既成世代의 ‘讀解 不能’

이런 誤解가 학생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 예로, 관공서나 시민단체가 ‘불편부당’이라는 단어를 이 같이 잘못된 文章 속에서 사용하는 實例다.

“민원 처리 과정의 불편부당한 대우 및 불친절한 사례 신고 접수.”(강원도 원주시청 홈페이지)

“한국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는 불편부당한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다.”(2010년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이 문장에선 ‘불편부당’을 ‘不便하고 不當하다’ ‘불공정하다’는 정도의 뜻으로 인식하고 있다. ‘不偏不黨’의 뜻이 그와는 정반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不偏) 한편과 무리 짓지 않는다(不黨)’, 즉 ‘공정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

이다.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지, 비슷한 문장의 ‘불편부당’을 ‘불편/부당’으로 고친 예도 있었다.

최근 ‘한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했다’는 말을 들은 일본인 미즈하시 다카아키(三橋貴明)의 책 《한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만큼의 이유》에는 그냥 흘러들을 수많은 없는 비판이 하나 등장한다. “한국에선 ‘防水(물을 막음)’와 ‘放水(물을 흘려보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安全과 관련된 분야에서 漢字를 몰라 정반대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混同을 겪는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큰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 ‘防火’와 ‘放火’ 역시 마찬가지다. 한 대학 병원의 전문의 B교수는 “요즘 젊은 의사들은 ‘임신부가 陣痛을 한다’고 할 때의 ‘진통’과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鎮痛 주사를 놓으라’고 할 때의 ‘진통’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 음은 같지만 뜻은 반대인 ‘동음반의어’

|    |    |                          |
|----|----|--------------------------|
| 연패 | 連霸 | 잇따라 이김                   |
|    | 連敗 | 잇따라 짐                    |
| 배외 | 排外 | 외국 것을 배척해 물리침            |
|    | 拜外 | 외국 것을 맹목적으로 숭배함          |
| 방화 | 防火 | 불을 막음                    |
|    | 放火 | 불을 지름                    |
| 실권 | 實權 |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세      |
|    | 失權 | 권리나 권세를 잃음               |
| 정부 | 情婦 | 아내가 아니면서 정을 두고 깊이 사귀는 여성 |
|    | 貞婦 | 솔기롭고 절개가 굳은 여성           |
| 소음 | 騷音 | 시끄러운 소리                  |
|    | 消音 | 소리를 없애거나 작게 함            |
| 편재 | 偏在 | 한곳에 치우쳐 있음               |
|    | 遍在 | 널리 퍼져 있음                 |

漢字 文盲 현상이 不必要한 社會的 葛藤을 낳은 예도 있다. 2012년에 教育部와 일부 教育廳 사이에 ‘체벌’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진 일이 있다. ‘손들고 서 있기’나 ‘운동장 돌기’를 체벌에 포함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는데, ‘體罰’의 뜻이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논란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身體的 體罰’이라는 표현도 심심찮게 쓰인다.

朝鮮日報가 2010년 서울 지역 5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가 지문을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말의 70%에 이르는 漢字語의 뜻을 몰라 文章을 解讀하지 못하는 ‘讀解不能’ 현상이 드러난 것이다.

李炳鎬 부산대 명예교수(국어학)는 이렇게 지적했다. “技能(기술상의 재능)과 機能(하는 구실이나 작용), 出家(집을 떠나감)와 出嫁(시집을 감)처럼, 한글로만 표기된 漢字語는 同音異義語 區別이 不可能하다”며 “漢字 教育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思考力과 探究力을 약화시키고, 語彙 體系의 崩壞로 思考 體系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이 憂慮가 조금씩 現實化되고 있다.

#### 4. 미디어가 擴散시키는 ‘漢字文盲’

##### (1) 글 쓰는 記者들도 漢字 不通

이렇게 많은 國民이 漢字를 모르거나 混同해 헤매는 현상을 바로잡아 줄 役割을 해야 하는 것이 新聞과 放送, 뉴스 등 미디어다. 그러나 이들조차 ‘漢字文盲’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디어가 잘못된 漢字語를 사용하게 되면 그 波及 效果가 크기 때문에 더욱 否定的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미디어가 잘못 쓰는 用語 중에는 이미 그것이 맞는 단어인 것처럼 굳어지다시피 한 것도 적지 않다.

인터넷 ‘네이버 뉴스’에서 ‘환골탈퇴’를 검색하면 1000건이 넘는 記事가 뜬다. 한 경제 뉴스 기사는 “뼈를 깎는 자기반성으로 조직 쇄신을 단행하면서 환골탈퇴(換骨脫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며 한자까지 집어넣었고, 한 방송은 기사 제목에 “소외주가 대박주로 환골탈퇴… 이것이 상승 신호”라고 썼다. 모두 ‘뼈(骨)를 바꾸고[換] 모태(胎)를 빼앗는대奪], 즉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는 뜻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잘못 쓴 것이다. 한자어의 뜻을 알지 못한 채 發音만으로 類推해서 쓴 결과다. ‘야반도주(夜半逃走·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감)’를 ‘야밤도주’로, ‘이역만리(異域萬里·다른 나라의 아주 먼 곳)’를 ‘2억만리’로, ‘성대모사(聲帶模寫·자기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일)’를 ‘성대묘사’로 엉뚱하게 쓰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검색된다.

간단한 한자어를 잘못 쓰는 사례도 많다. ‘폐해(弊害)’를 ‘폐혜’로 표기한 기사는 ‘네이버 뉴스’에 1500건 가까이 뜬다. ‘유례(類例)없는’을 ‘유래 없는’으로, ‘막역(莫逆)한 사이’를 ‘막연한 사이’로 쓰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마침내’ ‘결국’이란 뜻의 ‘畢竟’을 ‘필시’ ‘아마도’의 뜻으로 쓰거나, ‘적을 속이기 위해 주된 공격 방향과는 다른 쪽에서 공격하는 일’이라는 의미인 ‘陽動’을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한다’는 의미로 잘못 쓰기도 한다.

심지어 性이나 행위의 주체가 뒤바뀌는 것도 모른 채 용어를 쓰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에서 ‘묘령의 남성’이란 표현이 있는 뉴스 기사를 검색하면 200건 넘게 뜬다. “걸그룹 멤버가 묘령의 남성과 키스하고 있다”는 식이다. 심지어 ‘묘령의 노인’이란 표현도 있다. 하지만 ‘妙齡’이란 ‘나이를 알 수 없는’이 아니라 ‘스무 살 안팎의 여자 나이’를 뜻한다는 것을 記者들이 모르는 것이다. 男性의 이력을 설명하며 “요직을 두루 거친 뛰어난 재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才媛’이란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란 뜻이니 이만저만한 失禮가 아니다.

“얼음물 속 10대 구조 임신부 용감한 시민상 수여”라는 방송 기사 제목은 ‘수여(授與)’라는 말이 ‘(증서·상장·훈장 등을) 준다’는 뜻이므로 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상(受賞)’이나 ‘받아’로 바뀌야 한다. “전도연 국내 최초 칸 영화제 심사위원 위촉”이란 기사 제목도 마찬가지다. ‘委屬’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해 맡게 함’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맡아’나 ‘위촉돼’로 써야 맞는다.

“흡연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의 문장 역시 미디어에서 곧잘 볼 수 있는 말이지만,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禁止’란 ‘(법·규칙·명령 등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이란 뜻이다. 즉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금지합니다’나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로 바뀌어야 한다.

한 通信社 기사는 “그는 초대 학생회장을 역임했다”는 문장을 썼다. ‘歷任’이란 ‘여러職位를 두루 거쳐 지냄’이란 뜻이기 때문에 한 직위만을 언급한 이 문장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며, ‘지냈다’로 쓰거나 ‘초대 학생회장 등을 역임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한 영화에 대해 “박스오피스 2위에 등극했다”는 인터넷 뉴스의 표현 역시 ‘登極’의 뜻이 ‘임금의 자리에 오름’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나 지위의 오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의가사제대 대상자로 판정돼 자택에서 대기 중이었다”는 뉴스 문장은 漢字 뜻을 알면 誤謬가 명백해진다. ‘依家事除隊’란 ‘현역 군인이 자기가 직접 집안을 보살피야 하는 가정 사정(家事) 때문에[依]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이런 판정을 했을 리가 없다. 이 경우는 ‘依病除隊’라고 써야 맞는 말이 된다.

흔히 ‘志向(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함)’, ‘指向(작정하거나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감)’과 혼동하기 쉬운 ‘止揚’이란 단어도 잘못 쓰는 용례가 많이 드러난다.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 무엇을 극복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최용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건전한 자본주의는 사리사욕을 지양해야 이뤄질 수 있다”란 문장은 맞지만, “남북의 이질화를 지양하자”는 문장에서 ‘지양’이 단순히 ‘하지 않음’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解消’가 어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微細한 의미상의 차이까지 考慮해서 글을 쓰는 記者는 많지 않은 實情이다.

### 자주 틀리는 한자어

| 잘못 쓰인 예 (X) | 바른 표기 (O) |
|-------------|-----------|
| 한골탈퇴 換骨脫退   | 한골탈태 換骨奪胎 |
| 야밤도주 夜半逃走   | 야반도주 夜半逃走 |
| 이억만리 二億萬里   | 이억만리 異域萬里 |
| 성대묘사 聲帶描寫   | 성대모사 聲帶模寫 |
| 승승장구 勝勝長驅   | 승승장구 乘勝長驅 |
| 칠전팔기 七轉八起   | 칠전팔기 七顛八起 |
| 건강보험 建康保險   | 건강보험 健康保險 |

눈에 잘 띄지 않는 誤字도 많다. ‘승승장구(乘勝長驅)’를 ‘승승장구(勝勝長驅)’로, ‘칠전팔기(七顛八起)’를 ‘칠전팔기(七轉八起)’로, ‘건강보험(健康保險)’을 ‘건강보험(建康保險)’으로 잘못 쓰는 사례다. 지금까지 이 모든 誤謬가 미디어에서 실제로 무수히 저질러진 것들이다.

| 비슷하지만 부정확하게 쓰이는 한자어 |                          |                            |
|---------------------|--------------------------|----------------------------|
| 용어                  | 잘못된 문장                   | 고친 문장                      |
| 역임(歷任)              | 초대 학생회장을 역임했다.           | 초대 학생회장을 지냈다.              |
| 등극(登極)              | 그 영화는 박스오피스 2위에 등극했다.    | 그 영화는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
| 의가사제대<br>(依家事除隊)    | 질병으로 의가사제대 판정을 받았다.      | 질병으로 의병제대(依病除隊) 판정을 받았다.   |
| 지양(止揚)              | 남북의 이질화를 지양하자.           | 남북의 이질화를 해소(解消)하자.         |
| 수여(授與)              | 10대 구조 임신부 용감한 시민상 수여.   | 10대 구조 임신부 용감한 시민상 수상(受賞). |
| 위촉(委囑)              | 전도연 국내 최초 칸 영화제 심사위원 위촉. | 전도연 국내 최초 칸 영화제 심사위원 맡아.   |
| 금지(禁止)              | 흡연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흡연을 금지합니다.                 |
| 재원(才媛)              | 그 남성은 뛰어난 재원이다.          | 그 남성은 뛰어난 인재(人才)다.         |
| 단백(蛋白)              | 깔끔하고 단백질 목소리로 열창했다.      | 깔끔하고 담백(淡白)한 목소리로 열창했다.    |
| 막연(漠然)              | 평소 장난을 치는 막연한 사이였다.      | 평소 장난을 치는 막역(莫逆)한 사이였다.    |

## (2) 미디어 用語 混亂의 深化

이 같은 미디어의 ‘漢字文盲’ 현상은 대략 2010년 이후 과거 漢字가 많았던 세로쓰기 시절의 新聞을 읽은 경험이 거의 없는 新入 記者들이 入社하면서 더 深化되고 있다. 종합일간지의 한 기자는 “고참기자와 신입 기자의 경우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차이난다. 많은 신입 기자에게 한자어는 뜻은 없이 ‘음價’만 존재하는 말”이라고 했다. 실제로 ‘고참기자’ 측에 속하는 筆者 역시 최근 TV나 인터넷을 보다가 놀란 적이 많았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警備員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하자, 아파트 경비원의 劣惡한 현실을 취재한 뉴스 기사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한 방송 기사는 〈을(乙)도 아닌 ‘병(丙)’ … 경비원의 애환〉이란 제목을 달았다. ‘哀歡’이란 ‘슬픔(哀)과 기쁨(歡)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지만, 기사 어디에도 경비원의 ‘기쁨’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애환’이란 한자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이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다.

또 다른 방송 뉴스는 “경찰은 CCTV 속의 인물이 해당 인사와 인상착의는 물론이고 옷차림도 비슷하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人相着衣’의 뜻은 ‘사람의 생김새(人相)와 옷차림(着衣)’이기 때문에 ‘인상착의와 옷차림’이란 표현은 重言復言이다. 이 기자는 ‘인상착의’가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최근엔 각종 뉴스에

서 ‘事前豫約’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豫約’이란 말이 ‘미리[豫] 정한 약속[約]’이란 뜻이기 때문에 ‘사전’이란 말은 불필요하다. ‘사후예약’이란 표현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인데도 뉴스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사전에도 없는 動詞가 난데없이 등장하기도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금 문제를 염두해야 한다”는 문장에서 ‘염두하다’란 표현이 버젓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念頭’는 ‘생각의 시초·첫머리’ ‘마음속’이란 뜻으로, ‘念頭에 두다’(생각의 첫머리에 놓을 정도로 늘 중요하게 인식한다)라는 표현은 있어도 ‘念頭하다’라는 말은 없다. 원래 뜻과 다르게 쓰이는 용어도 많다. ‘電擊的’이란 말은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이란 뜻으로 ‘갑자기’ ‘돌연’과 비슷한 표현이다. 하지만 “차츰 내년이면 전격적으로 부회장 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올해 3분기에 전격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도 종종 나타난다. ‘全面的’이란 말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有名稅’는 ‘유명하기 때문에 겪는 불편’을 税金에 비유한 부정적인 말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유명세를 떨쳤다”며 긍정적인 표현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發音이 비슷한 엉뚱한 표기가 기사에 버젓이 露出되기도 한다. “걸그룹 전 멤버가 마약 사건에 연류됐다고 전해졌다”는 한 인터넷 기사의 문장에서 ‘연류’는 무슨 뜻일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涓流(작은 흐름)’와 ‘連類(하나의 무리를 이룬 동아리)’라는 두 단어가 등재돼 있지만, 이 문장에선 모두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남이 저지른 범 죄에 연관됨’이란 뜻을 지닌 ‘연루(連累/緣累)’를 잘못 쓴 것이다. 비슷한 예로 ‘최루탄(催淚彈)’을 ‘최류탄’으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위가 많은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뉴스’에 350건 가까이 뜬다.

‘육하원칙(六何原則)’은 기사를 작성할 때 물어야 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의 여섯 가지 원칙이지만, 이것을 ‘6가원칙’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기사를 쓰는 기자가 기사 작성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어떻게 부르는지조차 모르고 기사를 쓰고 있다는 의미다. 전투화를 신은 군인에게서 잘 나타나는 세균성 피부 감염증인 ‘봉화직염(蜂窩織炎)’은 ‘벌집의 많은 방(봉와)처럼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이지만, 많은 매체에서 ‘봉화직염’이나 ‘봉아직염’으로 잘못 쓰고 있다. “유명 가수 등 연예인 서배는 물론……”이라고 쓴 사례도 있는데, 여기서 ‘서배’는 ‘섭외(涉外)’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주의(注意)를 환기(喚起)하다’를 ‘주위를 환기하다’, ‘압권(壓卷)이다’를 ‘압건이다’, ‘춘향이는 수청(守廳)을 거부했다’를 ‘춘향이는 숙청을 거부했다’, ‘삭막(索寞)한 사막’을 ‘상막한 사막’으로 쓴 예도 있는데 이것들은 단순 誤打이길 빌고 싶다.

| 미디어에서 잘못 쓰거나 표현이 어색한 한자어 사례 |                                                       |                                          |
|-----------------------------|-------------------------------------------------------|------------------------------------------|
| 용어                          | 뜻                                                     | 오용 사례·어색한 표현                             |
| 애환(哀歡)                      |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울' 도 아닌 '병' ... 경비원의 애환.                |
| 연루(連累/緣累)                   | 남이 저지른 범죄에 연관됨.                                       |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
| 염두(念頭)                      | 생각의 시초, 마음속.                                          |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 예약(豫約)                      | 미리 약속함. 또는 미리 정한 약속.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예약받는다.                  |
| 유명세(有名稅)                    | 유명한 탓으로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                       | 한류 드라마의 진출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유명세를 떨쳤다. |
| 육하원칙(六何原則)                  | 기사를 작성할 때 물어야 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의 여섯 가지 원칙. | 6가원칙에 따라 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찾아내야 한다.       |
| 인상착의(人相着衣)                  | 사람의 생김새와 옷차림.                                         | 인상착의는 물론이고 옷차림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
| 전격적(電擊的)                    |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또는 그런 것.                             | 차츰 내년이면 전격적으로 부회장 체제가 들어설 것이다.           |

### (3) 漢字를 使用해야 할 單語는 한글로만 써

‘차상위계층’이나 ‘재형저축’처럼 요즘 뉴스에 한글로만 표기돼 등장하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漢字에 뜻이 함축돼 있지만 그 글자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記者들의 懶怠이거나 無知, 또는 慣性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자면 이젠 時事用語조차 영어 단어 외우듯 암기해야 할 지경이다.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00~120% 소득 가계로, 4인 가족 소득 기준으로 월 164만~196만원인 가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차상위계층’인 것인가? 차상위계층(次上位階層)이란 ‘(최하위 계층의) 다음[次] 위[上] 자리[位] 계층’이란 뜻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이란 의미다.

최근 신문 경제면에 자주 등장했던 金融商品 중 ‘재형저축’이 있다. 17년 만에 부활한 이 상품은 연봉 5000만원 이하 勤勞者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自營業者만 가입 가능한 非課稅 通帳으로, ‘서민들의 목돈 마련 수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시 한글로 쓴 용어만 봐서는 왜 ‘재형저축’이라 하는지 알기 힘들다. 재형저축(財形貯蓄)이란 ‘勤勞者 財産 形成 貯蓄’의 준말이다. 이 상품이 유행했던 1976~1995년에는 한자로 쓰는 일이 많아 혼란이 별로 없었겠지만 시대를 건너뛰어 한글 표기만 남으니 ‘뜻’이 실종돼 버린 경우다.

포털 사이트 지식 문답란에 한 네티즌이 “수의계약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란 질문을 남겼다. ‘베스트 답변’은 이랬다. “간단한 예로 설명드릴게요.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을 선택하는데 임의로 한 기업을 선정해 계약을 합니다.

단점은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장점은 입찰 경쟁 과열로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수의계약(隨意契約)이 ‘자기 뜻[意]에 따라隨 상대편을 골라서 맺는 계약이란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긴 설명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大統領이 시정연설을 하면 ‘시정연설’이란 단어가 포털 실시간 檢索語 1위에 오른다. 역시 한글로만 적혀 있으니 시정연설(施政演說)이 ‘정치[政]를 시행[施]하는 것과 관련한 연설’이라는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始政(정치를 시작함)연설’이나 ‘是正(잘못된 것을 고침)연설’ ‘市井(인가가 모인 곳)연설’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최근 뉴스에 곧잘 등장하는 ‘대사공학’이란 단어에 대해 한 科學 용어 사전은 ‘물질대사 과정에 포함된 경로에 조작을 가하여 변화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물질대사 경로를 만드는 기술’이라 풀이했다. ‘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하나 마나 한 설명이다. 대신할 代, 물러날 謝를 써서 ‘새것이 들어오는 대신代에 헌것이 물러남謝’이라는 뜻을 알면 ‘물질을 섭취하는 대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한다는 것도 알기 쉽게 된다.

#### (4) 出版・公演・映畫에도 誤謬 많아

言論媒體뿐이 아니다. 출판・공연・영화・방송 등을 제작하는 문화계 주 인력층이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라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한자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중 대학 강의실 장면에서 교수가 한 학생을 가리키며 “거기 그 학생! 그래, 제군이 한번 말해보게”라고 말한다. 뮤지컬의 작가는 ‘諸君’이란 말의 뜻이 ‘여러 명의 아랫사람을 조금 높여 부르는 2인칭 대명사’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諸’라는 한자에 ‘여럿’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쓰지 않았을 표현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전략에 관한 한 經營書는 ‘항공모함 함장의 한 마디에 모든 승무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듯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일사분란’이란 말은 없다. ‘실 한 가닥도 엉키지 않을 정도로 질서가 정연하다’는 뜻인 ‘일사불란(一絲不亂)’을 잘못 쓴 것이다. 만약 ‘일사분란(一絲紛亂)’이라면 ‘실 한 가닥마다 어수선하고 소란스럽다’는 정반대 뜻이 된다.

한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소개에는 ‘유교의 폐해를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문장도 보인다. ‘폐해(弊害)’를 ‘폐혜’로, ‘신랄(辛辣)’을 ‘실랄’로 각각 잘못 쓴 것이다. 유명 出版社가 낸 인문 분야의 한 翻譯書에는 “발각되어 처벌당하고 명예가

회손되는 것이 두려워”라는 표현이 나온다. ‘훼손(毀損)’이란 단어를 발음이 비슷한 ‘회손’으로 잘못 쓴 것이다. ‘훼방(毀謗)’을 ‘회방’으로 쓰는 예도 꽤 많이 보인다.

일상에서 틀리게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예 사전에 항목으로 오른 단어도 있다. ‘역활’이란 말은 ‘역할(役割)’을 잘못 쓴 것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은 아예 ‘역활(役-)’이란 항목을 두고 ‘→역할’이라고 올바른 標準語를 표시해주었다(화살표는 표준어의 뜻풀이를 참고하란 의미). 잘못 쓰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다.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역활’을 검색하면 1200건 넘는 자료가 나올 정도다. 인터넷에선 “‘역활(力活)’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라며 엉뚱한 뜻풀이가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역활(力活)’이란 말은 없다.

##### (5) 미디어가 惡性 新造 漢字語까지 使用・傳播

이렇게 잘못된 用語를 사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뜻이 잘 통하지 않는 ‘新造 漢字語’까지 버젓이 쓰는 것이 최근 미디어 글의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대인배’ ‘역대급’ ‘관중’ ‘열폭’ ‘훈남’ ‘폭풍흡입’ ‘간지’ 등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모습을 드러낸 뒤 각종 미디어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쓰이는 이 신종 한자어들은 주로 한자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한자의 造語 원칙을 무시하거나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新世代가 쓰는 ‘新한자어’를 기성세대가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소통 단절까지 빚어진다.

‘대인배(大人輩)’는 小人輩의 반대말로 ‘아량이 넓고 관대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한다. 2000년대 초에 부조리 대사로 유명한 漫畫家 김성모가 만화 대사로 처음 사용했으나, 점차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행하더니 신문과 방송에까지 등장하는 말이 됐다. 그러나 ‘무리’를 뜻하는 ‘輩’라는 말이 폭력배·불량배·모리배·시정잡배 등 대부분 부정적인 말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단어다. ‘小人輩’의 올바른 반대말은 ‘君子’지만 정작 이 말은 死語에 가깝게 돼 버렸다.

‘역대급(歷代級)’ 역시 요즘 생겨난 단어다. ‘대대로 이어 내려온 여러 代’라는 뜻의 ‘역대’와 ‘계급이나 등급’을 뜻하는 ‘급’이 합쳐진 것으로, 굳이 해석한다면 ‘역대 1위라고 할 만한 등급’ ‘역대에 남을 등급’ 정도의 뜻이 되겠지만, 말 자체로는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관중(關種)’이란 ‘관심종자(關心種子)’란 신조어의 준말이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분탕을 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그런

속뜻을 모르는 사람이 얼핏 들어서는 어리둥절하기 십상이다. ‘劣等感 暴發’의 준말인 ‘열폭(劣暴)’이나 ‘薰薰한 남자’의 준말인 ‘훈남(薰男)’도 이 같은 방식의 신조어다. 정신 없이 음식을 먹는 모습에 대해 ‘폭풍흡입(暴風吸入)’이라는 표현도 특히 최근 들어 많이 쓰는데, ‘吸入’이라는 말이 ‘기체나 액체를 빨아들임’이란 뜻이라는 것을 모르고 밥을 먹을 때도 이 표현을 쓰고 있다.

일본식 한자어가 새로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다. ‘간지(感じ)’는 ‘느낌’을 의미하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간지나다’라는 말은 ‘멋있다’ ‘느낌이 살아있다’는 뜻으로 최근 인터넷과 미디어 등에서 급속하게 확산됐다.

이렇듯 오히려 ‘漢字文盲’ 현상을 교정하거나 치유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잘못된 한자를 사용하면서도 잘못된 줄조차 모르고 있는 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각 언론사나 언론진흥재단 등의 교육기관에서 기자를 교육할 때 제대로 된 漢字 教育 과정을 필수로 넣는 것이다.

## 5. 나오며

‘漢字文盲 現象’의 弊害는 크게 ① 意味의 疏通을 막으며 ② 知識의 擴張을 불가능하게 하고 ③ 傳統과의 斷絶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큰 것은 ①이다. 古典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言語 자체를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②와 ③도 심각한 문제다. 漢字가 많이 쓰인 1980년대 이전 책을 대학생이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국 대학 圖書館에 소장된 자료 중 90% 이상이 그대로 死藏된다는 의미다. 요즘 일부 대학 도서관은 잘 대출되지 않는 책들은 아예 폐기하기도 한다.

光復 이후 한글 교육이 우리나라의 文盲率(非文解率)을 크게 떨어뜨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945년 광복 당시 문맹률은 77.8%나 됐다. 그러나 1950년대 정부가 대대적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면서 문맹률은 1966년 8.9%, 1970년 7%로 급격히 떨어졌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08년 성인 기초 文解力(글 해독 능력) 조사에서 非文解率은 1.7%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글 교육이 이뤄놓은 ‘1%대 文盲率’이 곧바로 讀解 能力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2008년 조사에서 낱글자나 단어는 읽을 수 있으나 文章 理解 能力은 거의 없는 半문해자가 5.3%나 됐던 것이다. 文解者 중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推論할 수 있는 사람은 35.1%에 그쳤다. 이 때문에 “한글은 사랑하면서 漢字의 뜻도 깨우치는 교육을 병행해 知力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

는 것이다.

漢字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誤解하는 것은, 漢字를 사용하는 것이 민족 자주성을 해치는 일이거나, 漢字가 ‘外國 글자’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외국 출신 韓國學 전문가들이 내놓은 견해가 있다.

“漢字는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어의 큰 범주에서 봐야 한다. 자기 文化를 알게 하려면 漢字와 漢文 교육을 해야 한다.”(베르너 사세, 독일, 전 한양대 석좌 교수)

“韓國語 文字에서 漢字의 존재를 빼낼 필요가 없다. 한글을 우선하면서 漢字의 가치를 인정하고 語文政策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버트 파우저, 미국, 전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세종대왕은 한글 專用을 위해 한글을 만든 것이 아니다. 한글 전용은 漢字라는 뿌리를 잘라 버린 꽃다발이다. 한글 전용은 한국어를 약화시킬 것이다.”(라이너 도멜스,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교수)

“국내 인구보다 30배나 많은 이웃 나라들의 인구에게 통하는 ‘코드’인 漢字가 이미 우리 언어 속에 내재돼 있다는 것을 나쁘게만 볼 일인가?”(박노자, 러시아 출신 귀화인,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

한글 전용 정책을 담은 國語基本法이 違憲이라는 憲法訴願을 청구한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는 이런 취지를 밝힌 바 있다. 韓國의 漢字는 한글과 같이 우리의 傳統文字이자 固有文字다. 우리 民族은 民族의 思想과 情緒를 담은 漢字를 2000年 이상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고유한 것이 아니고 500여 년 전에 창제한 訓民正音만 고유한 것이라는 논법은 이해할 수 없다. 로마자나 아랍문자에서 보듯, 문자는 한 민족뿐 아니라 여러 민족이 공통으로 사용한다. 우리말은 漢字語와 漢字를 必須 요소로 한다. 韓國語는 뜻을 나타내는 表意文字와 소리를 나타내는 表音文字를 섞어 두 文字의 長點을 절묘하게 취하고 있다.

이제 ‘한자를 교육시켜 학생들의 부담을 키워서는 안 된다’ ‘한자를 몰라도 문맥만으로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한 그 문장 속의 ‘教育’, ‘學生’, ‘負擔’, ‘文脈’, ‘理解’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고 말이다.

2018년부터는 初等學校 3학년 이상 教科書에 마침내 漢字가 併記된다. 실로 ‘한글 專

用 教育' 48년만의 일이다. 남은 일은, 이렇게 漢字를 배운 학생들이 생활에서 실제로 漢字를 많이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뿐 아니라 성인도, 교육자도, 미디어 종사자도, 韓國語를 구사한다면서 漢字를 모르는 것이 無知에 속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 한자로(漢字路) 한글漢字 자동변환기 활용연구

2014. 11. 25

玉哲榮  
울산대학교 IT융합전공  
한국어처리연구실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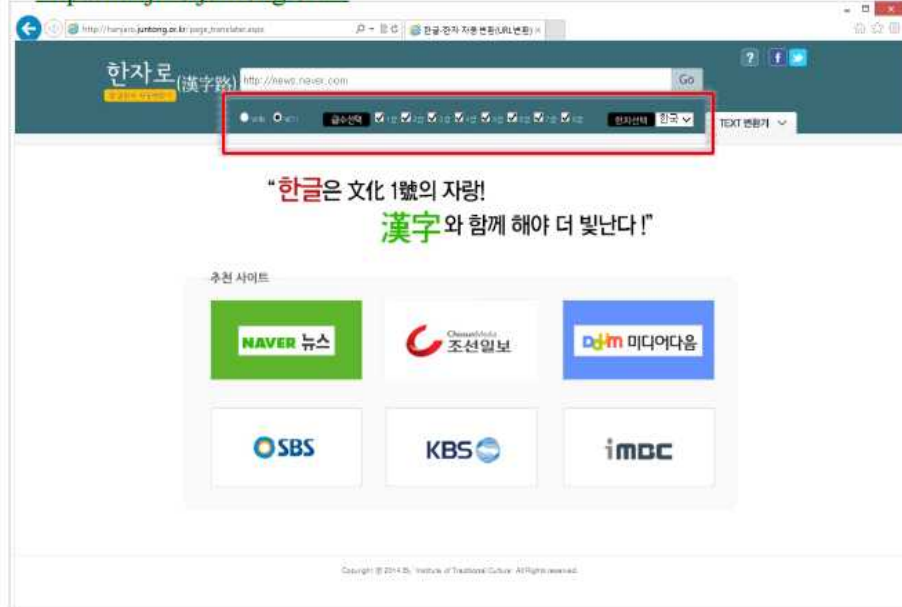
- ❖ 한자로(漢字路) - 한글한자 자동변환 웹서비스
- ❖ 한글한자 자동변환 활용
  -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 법률 한자 변환
- ❖ 형태소/동형이의어 분석시스템(UTagger) 성능 개선

## 한자로 (漢字路) - 한글한자자동변환 웹서비스

- ❖ 웹페이지의 한글 문서를 문맥에 맞는 한자어휘 자동 변환
  - 한글의 정확한 형태소분석
    - 이러한 어려움에 한국의 **정치가**들은 정치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 한국이 4만불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가 개선되어야...
  - 문맥에 맞는 동형이의어 분별
    - **검사(檢事)** 출신의 변호사
    - **검사(檢査)**를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줄였다.
- ❖ 추가 선택 기능
  - 한중일 3국 한자변환
    - 중국 간체 : 중국-1986년판 “간화자총표” 수록 한자 전체
    - 일본 약자 : 일본 상용한자에 수록된 모든 新字體
  - 한자능력검정 급수별 변환

## 한글한자 자동변환 웹서비스 (1)

❖ <http://hanjaro.juntong.or.kr>



## 한글한자 자동변환 웹서비스 (2)



## 한글한자 자동변환 웹서비스 (3)



## 한자 변환 활용 (1)



### ❖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한자

-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민현식, 2004)
-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1~6학년 18개 교과서 대상

■

| 누적 분포      | 개별 漢字數   | 비율   |
|------------|----------|------|
| 1001회 이상   | 93자      | 3.3% |
| 500~1000회  | 129자     | 4.8% |
| 100~499회   | 493자     | 18%  |
| 11~99회     | 1,029자   | 38%  |
| 6~10회      | 242자     | 9%   |
| 1~5회       | 701자     | 26%  |
| 합 422,062회 | 합 2,687자 |      |

數生物動活分學用親對舊方個人介自內箇法模  
時點地表容日形國事年體中發間樣化計氣色爲  
場比題角子行各要大文道實民等家會理使部間  
圖意境市面通山校關心現的冊定利工作先主食  
度求名族調夫便整全件約後直

- 교육용 한자 1,800자 중 1,665자 포함
- 135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미출현
- 1,022자(33%)는 교육용 한자에 미포함

- 1,986자가 6회 이상 출현, 누적빈도 420,537
- 동일 한자가 여러 번 반복 출현하는 것은 한자/한문교육에서 개별 한자 교육이 중요
- 국어어휘 교육에도 개별 한자 교육이 유용함

## 한자 변환 활용 (2)



### ❖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한자변환 시 고려 사항

- 개별 한자
  - 교육용 한자 1,800자 + α
  - 한자능력검정 시험의 등급
- 한자어휘
  - 초등학교용 사전 내의 어휘 대상
  - 동형이의어
- 변환방식
  - 한자변환 정확률 고려
  - 전문가에 의한 반자동 변환

## 한자 변환 활용 (3)



### ❖ 법률의 한자변환

- 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민법
- 상법시행법
- 형법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한자변환된 법률과 UTagger 한자변환 결과 (한자:한자) 비교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시행(施行) 1988.2.25] [헌법(憲法) 제(第)10호(號), 1987.10.29. 전부개정(全部改正)]

第(第)1章(章) 總綱(統綱)

第(第)1條(條) ①大韓民國(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大韓民國)의 主權(主權)은 國民(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權力)은 國民(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第)2條(條) ①大韓民國(大韓民國)의 國民(國民)이 되는 要件(要件)은 法律(法律)로 정한다.

## 한자 변환 활용 (4)



### ❖ 법률의 한자변환 정확률

| 법률      | 법률 학습전 | 법률 학습후 |
|---------|--------|--------|
| 헌법      |        |        |
| 노동관계조정법 |        |        |
| 민법      |        |        |
| 상법      |        |        |
| 형법      |        |        |



## UTagger 성능개선



11

- ❖ 동형이의어 구분 : 2자리 => 3자리까지 구분
  - 동명이인 인물/호 등 구분
  - A\_\_100 가능
  - A\_\_01와 A\_001 구분됨
- ❖ 미등록어/신조어 추정 기능
- ❖ 사용자사전에서 문맥정보 학습 기능
  - 학습사전을 매번 새롭게 구축하지 않아도 됨
  - 사용자사전에 문맥정보(2개 이상의 어절) 등록하면 바로 학습



## 맷음말



12

## Q & A

[okcy@ulsan.ac.kr](mailto:okcy@ulsan.ac.kr)

052-259-2222 (010-2561-5830)

울산대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지능형컴퓨터연구실

<http://nlplab.ulsan.ac.kr>